

## 참사람 열린교육 저레와 함께 94년



문수보살 금강산 현시도

희망찬 새천년에 문수보살께서 백두대간의 중심인 금강산을 통해 내려오셔서 불국정토로 통일을 이룩해 내신 모습

그림=우현 송영방 화백(본교 예술대 학장)

### 개교 94주년 치사

## 21세기 세계의 명문대학을 향한 응비



오 녹 원 이사장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재단 임원님과 역대 총장님, 총동창회 권노갑 회장님과 동문여러분! 자매대학인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케니 총장님, 오명 동아일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신록의 푸른 봄빛으로 가득한 오늘, 본인은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대표하여 먼저 모든 동국인 여러분과 함께 동국대학교 개교 94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교 이래 깊은 신심과 뜨거운 애교 정신으로 오늘의 동국대학교를 건설해온 역대 이사장과 총장, 교직원과 동문 여러분에게도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가족 여러분!

돌이켜 보면, 동국 94년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부처님의 크신 가피와 모교를 사랑하는 동국인의 의지와 정성으로 굳건한 성장을 계속해온 도전과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니다. 1906년,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쇠퇴하고 민족의 희망이 꺼져 가던 때에 불교의 선각자들께서 삼보의 정재를 모아 고등 교육을 통한 민족 중흥과 불교적 인간 교육을 통한 민족지도자 양성을 위해 개교한 명진학교가 바로 동국대학교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 때에는 항일 운동의 본산이 되어 여러번 폐교되기도 했고, 해방 후에도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고통과 시련은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동국대학교는 민족의 명문 사학으로 세계적인 대학을 건설하기 위해 힘찬 응비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21세기를 맞은 세계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정보산업혁명 시대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제4의 물결시대'를 예고하는 등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학문의 진보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 간의 경쟁도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 동국대학교가 민족의 명문 사학으로서의 명예로운 전통을 지키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동국인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애교심으로 가일층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동국대학교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두뇌한국 21' 사업에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이 선정되어 불교학 연구중심대학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과학 분야와 연극영상학 분야에도 명문 사학으로서의 명성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일산신도시에 착공한 의과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도 지금 힘차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취는 동국발전전에 지대한 원력을 지닌 송석구 총장님과 동국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은 새 세기에도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사명이 있습니다. 본인은 미래사회 인류를 구원할 빛은 동양의 중심 종교인 불교에 있고, 그 빛의 근원은 불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우리 동국대학교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국대학교는 한국불교의 긍지와 자존심을 걸고 동국의 학문적 전통인 한국학과 동양사상의 연구는 물론 불교와 현대학문을 접목시키는 학제간 연구를 강화하여 불교학의 현대화와 사회를 위한 응용 방법을 모색하여 미래 인류를 구원할 사상을 창조하고 실천하는 빛의 아카데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의 구성원들은 대학의 양심과 학문적 자존(自尊)을 높이고 학풍쇄신 운동을 통한 학사행정의 개선과 교육과 연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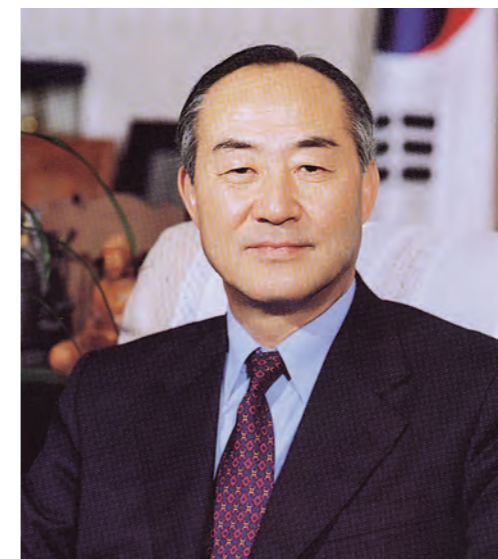
교수는 새로운 학문 경향이나 방법을 신속히 수용하며 연구와 교육활동에 전심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 동국인들은 현연일체가 되어 개교 100주년의 금자탑을 향해 부단한 자기 개혁을 위한 창조적 의지와 헌신적 자세를 보여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재단으로서의 일산의 불교종합병원 건립과 제3캠퍼스 조성 등을 비롯한 교육 지원 시설 확충과 정보문화사상사에 적용하기 위한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개혁 사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동국의 발전에 헌신하여 자기 근속상을 수상하는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자매대학 총장이자 국제원효학회 공동 의장으로서 원효전서 영역사업에 큰 도움을 주신 케니 총장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동국인 여러분과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교 94주년 기념사

## '새로운 시대' 선도하는 대학으로



송 석 구 총장

친애하는 동국 가족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오녹원 동국학원 이사장님과 재단 임원님, 역대 총장님, 종단의 대덕 큰스님, 권노갑 총동창회 회장님과 동문여러분, 그리고 자매대학인 스토니 부룩 뉴욕주립대학 케니 총장님, 오명 동아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1906년, 불교 선각자들이 교육과 학문연마로 구국(救國)하겠다는 일념으로 삼보의 정재를 모아 동국을 열었던 때로부터 94주년에 이르는 오늘까지, 우리 동국의 역사는 탁류를 몰아내고 청파를 끌어들이는 격탁양정(激濁揚清)의 역사였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에 편승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구르는 조국을 떨쳐 바로 세우려하였던 그 정신으로 일관하면서 한국의 대학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역사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해준 모든 동국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지금은 세계 질서에 다시 한 번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제2축시대(the second axial age)'입니다. 21세기는 단순히 20세기의 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 3,000년만에 다시 돌아오는 재창조의 세기인 것입니다. 개교 94주년을 축하하는 이 자리는 동국인 여러분 각자가 새로운 질서의 창조자가 되겠다는 사명(使命)을 되새우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모든 인류의 영원인 대생명(大生命)·대화해(大和諧)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서원(誓願)을 세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도 그 안의 돌은 물결 따라 이리저리 구르지 않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강석불회(江流石不轉)'의 태도와 정신으로 임할 때, 거대한 변혁의 물결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물결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그동안 '경장(更張)'을 기치로 추진해온 일련의 교육개혁과 불교종합 병원의 착공 등은 변혁의 시대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창조자의 마감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동국인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동국 가족 여러분!

첨단 정보 기술을 선도하면서도 불교 정신에 입각하여 참다운 자아를 개발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동국에서 마음껏 내래를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동국이 있게 해준 교직원, 학생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동국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원효학회의 공동 의장이자 세계적 석학이신 뉴욕 주립 대학의 케니 총장께 명예박사 학위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동국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지면안내

벤처주간 특집

6면



대학가에 불고있는 벤처열풍을 진단하고 대학내 창업상황을 알아본다.

일본 증권위안부 모의 법정

4면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는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에 숨어 있었다. 어두운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여성에 대한 성노예 범죄를 모의 법정에서 짚어본다.

N세대 난상토론

8~9면

N세대가 바라본 N세대들의 사고·생활습관 등을 토론한다. 이를 통해 N세대란 누구인가를 규명하고 그들의 특징과 잠재력을 진단한다.

유머 시리즈

11면



시대별로 변화된 시리즈 속에 나타난 문화 사회적 코드를 읽는다.

유머시리즈에 나타난 풍자·희화·언어 유희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를 향해 뼈있는 시선을 던지는 유머시리즈의 의미를 찾아본다.

경주캠 사격부 상위 입상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서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종합 사격장에서 열린 '제16회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본교 경주캠 사회체육학과 사격부(코치=김태호)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전국 대학 1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회는 본교 사격부 1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입상성적을 살펴보면 △소구경 3차세=단체1위, 개인(박기정·사체3)1위 △소구경복사=단체2위 △공기소총=단체 3위, 개인(권상균·사체2)2위 △공기권총=단체3위, 개인(선우용·사체2)3위 등이다.

수상과 관련해 김태호 코치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타 대회에서도 더욱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일 법요식 진행

수계식 7백50명 참석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학생, 교직원 등 전 동국인과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각원은 지난 2일 중강당에서 '춘계수계 대법회'를 열고 학생과 교직원 7백 50명에게 수계식을 거행했다. 또한 오후 6시 불상 앞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개교 94주년 기념 점등식'을 진행했으며 연등은 오는 15일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일산병원, 서울대병원과  
진료업무지원협약 체결

경기도 일산에 세워지는 불교 종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진 파견 등 제반 진료업무의 지원을 위한 '동국대학교·서울대병원 지원협력 협약식'이 지난달 19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됐다. 송석구총장과 서울대병원 박용현 원장이 협약에 서명하게 됨에 따라 전공의 선발수련, 임상교원 추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조인식에는 서울대 박용현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동국대 송석구 총장, 서정욱 의료원장, 배성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개교 94주년 기념식 오늘(8일)진행

서울캠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 뉴욕주립대 총장 명예박사 수여

본교 제 94주년 개교기념식이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이번 기념식은 △삼귀의례 △국민의례 △발원문 봉독 △학교연혁보고 △표창장 수여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취지서 낭독 △학위기 수여 △답사 △교가제창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되며, 김홍철(생명사원산업유통학) 교수와 기획인사처 인사관리팀 변민우씨를 비롯한 71명의 교직원에게는 장기근속 및 공로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서는 본교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원효

전서 번역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공헌한 바가 큰 스토니 브룩 뉴욕 주립대학의 셸리 스트로카니 총장에게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뉴욕주립대학 최초의 여성총장인 케니총장은 국제원효학회의 미국측 회장을 역임할 만큼 불교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장기근속 표창대상자 및 공로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기근속 표창대상자

△30년 근속=(교원)김홍철, 김재공, 신현소 (직원)황영수, 오종호, 송부자

△20년 근속=(교원)김정태, 김번웅, 이승영, 김상중, 정용근, 황윤식 (직원)김철석, 최철환, 조원생, 정성호, 채찬호, 신봉근, 김상운, 신태용, 박정우, 장금숙,

김기욱, 박창근, 김기동, 이병무, 장근두, 정성규, 임신규, 김주근, 이경희  
△10년 근속=(교원)박경준, 서태룡, 유덕기, 박주방, 김용택, 이명중, 박기흥, 박용석, 심재철, 이영배, 임현술 (직원)이병희, 임현장, 김창환, 김광영, 박옥선

공로상 수상자

△공로상 1급=변민우, 김영훈, 박정순, 최정숙, 박세훈, 김성규, 신익중, 노동영, 김영기, 윤주성, 김진환, 박현미, 이흥화, 김성원

△공로상 2급 =이병길, 김홍중, 주진준, 김성환, 최준석, 남태섭

△특별 공로상=이형우, 이창학, 김형진, 김중임

<이상 71명> 대학부



2000년 노동절...

대정부 교섭 촉구 및 총파업투쟁력의 노동자 대회 가 지난달 29일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동자, 농민, 학생 등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자 3대요구안 시행을 촉구했다.

김윤미 기자  
junkiga@hanmail.net

교수회 학칙기구화 추진

계약임용제에 따른 자치권 확보 움직임

학내 민주화 일보전진 기회... 사립학교법 개정 우선돼야

전국사립대학의 교수회는 교수회를 학칙기구화 할 것을 공동으로 결의했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김태정·한국외국어대)는 지난달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회를 학칙기구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에 본교 교수회도 교수회 학칙기구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교수업적평가제와 계약제, 연봉제에 대비하기로 했다. 최근 교수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학재단이 친본인사를 총장으로 내세우거나, 재임용에서 교수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탈락시키는 등 재단의 비합리적 운영을 저지 △교수연봉 계약제를 폐지해 교수들의 자치권을 보장 △사립학교법에 평교수회 설치 의무와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에서 오는 2002년부터

터 전면 시행할 예정인 계약 임용제는 교수들간의 경쟁을 유발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3년에서 5년 사이로 계약을 하고 재임용여부가 교수업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교수회가 학칙상 자치기구로서 인정되지 않고, 학교 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계약제와 연봉제는 교수의 자치기반을 무너뜨리고 재단의 비합리적 운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본교 심익섭(행정학)교수회장은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교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수회는 학칙상 정식기구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교수들의 자치기반을 약화시키는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는 교수회가 학칙 기구화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기획예산팀의 박승종 과장은 "현재 교수회를 학칙기

구화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교수들의 의견은 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와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회장=강덕식 경북대, 이하 국교협)는 지난달에 각각 총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전국적 규모의 단일교수단체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 정책인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사업의 문 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대학 개혁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심익섭 교수회장은 "교수단체가 단일 조직으로 되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교수회가 학칙기구화 되는 것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중 기자  
rokett23@dgu.ac.kr.

2001학년도 입학전형 확정

서울캠 인문계 교차지원 불가

본교 2001학년도 입학전형이 확정됐다.

서울캠 정시모집의 전형일정은 '나'군이며 지난해와는 달리 자연계열의 교차지원만 가능한 반면에 인문계의 자연계로 교차 지원은 생명자원과학대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정시모집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주간 인문계열은 △내신성적 40%, 수능성적 55%, 논술3% 면접2%이며 자연계열은 △내신성적 40%, 수능성적 58%, 면접 2%로 지난해와 같다.

전반기 특차모집에서는 외국어우수 학생 중 TEPS 시험응시자를 새로 추가해 17명이 늘어나며 점수도 TOEIC 8백점 TOEFL 5백 60점 이상으로 지원자격이 강화됐다. 또한 불교계 관련추천 모집인원이 지난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후반기 특차모집은 지난해와 같다. 후반기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은 △경험합정, 연극영상 상위 4% △공과·정보산업대학 상위 10% △사범대학 상위 9%이며 문과대를 비롯한 나머지는 상위 8% 이내이다. 또한 인문계의

교차지원 역시 생명자원과학대를 제외하고 불가능하다.

경주캠퍼스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주요 사항을 보면 전체 모집인원 2천3백34명 중 △수시모집=87명 △특차모집=1천11명 △정시모집=1천2백36명 등으로 교차 지원이 허용되는 수시·특차 모집 인원이 전년도 38%에서 47%로 확대됐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수시 모집에 만학도와 주부 전형 유형을 신설했다. 지원자격은 △만학도-고교 졸업 후 10년 이상 또는 30세 이상인자 △주부-결혼 후 5년 이상 또는 27세 이상인 주부 등이다.

특차전반기 모집의 학교장 추천제도가 담임교사 추천제도로 변경돼 추천인원이 3명까지 가능하게 됐으며 전형유형에는 장기근속 소방관 자녀 제도가 추가됐다.

정시 모집 전형군은 지난해와는 달리 △예·체능 계열-다군 △일반계열-라군으로 분할모집하며 수능시험 제 2외국어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선을 통한 자아개발

정성본 (불교문화대 불교학)

선을 동양의 정신이며, 마음의 고향이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많은 갈등을 쉬게 하고, 각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또한 근원적인 본래심으로 지혜롭게 자기의 매사를 창조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은 단순히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들뜬 마음을 쉬게 하는 좌선이 목적이 아니다. 각자의 본래심의 사유로 자아개발을 하여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자신의 일을 만들고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꾸도록 해야 한다. 즉 선을 통한 사유로 각자 독자적인 창의력으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고, 남에게 이기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사회에서는 숫자로, 혹은 우열과 다소 좋고 나쁨으로 가치 기준을 설정하여 사물에 대한 대립과 분별심으로 시기 질투하며, 매일 경쟁하고 싸움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잠시 뜬이나 물건이 숫자로 앞서고 기술에서 남보다 이겼다고 진정한 승리자는 아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숫자 경쟁은 대상이 무공무진하기 때문에 경쟁의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 끊임없는 경쟁자와의 싸움은 서로를 죽이는 일이며 정력과 경제력, 시간과 인생의 무의미한 소비전쟁이 되고 있다. 서로를 힘있게 하고 괴롭게 하며, 병들게 하고 서로를 죽이는 결과가 되고 만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일시로 이겼다고 해서 완전한 승리자는 아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본래심의 사유로 창의력을 개발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남과 쓸데없는 경쟁과 소비전쟁을 하지 않아도 독창적인 상품으로 이길 수 있다.

외부적으로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선을 통한 본래심의 사유로 자기 향상의 창의력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독창적인 삶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남과의 상대적인 경쟁이 아닌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는 독창성이 자신의 인생을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며, 또한 주위와 이웃,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진정한 보살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수동정

- ▲ 조의연(영어영문학)=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프로그램 학술회의 참가
- ▲ 하현국(호텔경영학)=지난 3월1일자로 관공산업연구소장으로 선임

동대신문 기획광고

벤처창업특강

15(월) 2시 벤처창업과 코스닥  
양재·포이 벤처지원센터  
소장 최정현(임·80학번)

16(화) 2시 벤처기업가 정신  
(주)Auction  
사장 오혁(일문·82학번)

17(수) 2시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  
서울중소기업청 벤처기업과  
과장 천상만

장 소 : 중 강 당



벤처창업경연대회

- ▲ 시상 : 대상 3백만원  
우수상 2백만원  
佳作 1백만원
- ▲ 응모기간  
4월 24일(월)~5월12일(금)
- ▲ 참가자격  
동국대학교 대학원과 학부 재학생
-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2부
- ▲ 제출처  
서울캠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  
전화 02)2260-3736
- ▲ 사업설명회  
5월 18일(목) 2시 동국관 L401  
www.dgu.ac.kr 참조

###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 개교기념식에서 연구비 지급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는 2000학년도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자를 발표했다.

선정자는 △임기중(국어국문학) △이충기(관광경영학) △박인국(생물학) △이정원(미술학) △남경수(의학) 등이며 각의 책임시간을 3시간 간면받는다.

또한 송석구 총장은 오늘(8일) 개교기념식에서 연구비를 3백만원씩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유명 학술지에 여러차례 발표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전했다.

### 미시간 주립대 교환학생 선발

####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파견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는 2000학년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현재 3학년 재학 △평균평점 3.0 이상 △토플 550점 이상 취득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토플 성적표를 국제교류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28일 면접을 통해 모두 5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파견된다.

### 어버이날 뜻깊은 행사 마련

#### 어려운 이웃 직접 방문

참사람봉사단은 오늘(8일) 어버이날을 맞아 중구관내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들을 방문한다.

본교 교직원들이 지난 98년부터 후원해오던 것이 계기가 된 이 자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뿐만 아니라 기념품도 함께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참사람 봉사단의 최정숙 담당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시작한 것"이라며 "어느때보다 뜻 깊은 어버이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원충, 원우 체육대회 개최

#### 내일(9일)부터 이틀간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영재·정치학박사 2학기)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원우 체육대회를 연다.

'순수한 즐거움, 경쾌한 혁명'이라는 모토 아래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농구, 릴레이 등의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재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학문에 열중하느라 많이 지쳐있던 대학생에게 활력소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00학년도 등록금 최종 확정

## 1학기 11% 2학기 8.5% 인상 ... 총장, 교육·복지 관련 환경개선 약속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 과학4)와 학교측은 2000학년도 등록금을 1학기는 11%, 2학기는 8.5%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와 함께 1학기 등록금 인상에 중 2%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학생회는 20여일 넘게 계속했던 본관의 부분 점거를 지난 4일 해제했다.

이번 본관 점거는 지난 달 11일 학생 최고의결기구인 학생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었으나 점거 이후 농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의 미흡함과 중간고사

시험기간이라는 시기적 어려움으로 협의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였다.

본관점거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교무위원 명의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담화문과 관련 총학생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지난달 30일 학교측은 마지막 협의안을 제시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협의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에 본관 점거를 해제하고 난 후 총장실에서

송석구 총장과 이승복 총학생회장의 단독 면담이 있었다. 면담이 끝난 후 이승복 총학생회장은 "동국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요구안 중 교육과 복지환경 관련부분에 대해 총장님은 진두지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상규 학생복지실장은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쓰일 등록금 인상에 중 2%는 총학생회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총학생회와 학교측간에 합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2000학년도 등록금은 1학기는 11%, 2학

기는 8.5% 인상 △등록금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 △5월 법인감사 후 결산자료 공개 △적립금은 2000학년도 책정된 예산서에 따라 사용 △등록금은 본교 한의과대와 의과대 부속병원인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사용 안함 △기숙사 설립 △2000년도 2학기 개강전에 모든 과과대별 교육·복지환경 요구안과 관련해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 △동국발전이라는 대의아래 학내 재구성원들의 논의와 단합을 도모하는 것 등이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 회전무대

#### 어색한 만남(?)

O...지난 주 진행된 불교도주간 행사 중 경주캠퍼스 국악과의 국악 환타지 공연 때 방송국 스피커에서 공연내내 음악소리가 울렸는데.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연주 중간 중간에 다른 음악소리가 겹쳐 들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국악공연에 방송국이 만났으면 퓨전음악이 된다?"

#### 의자와 등받이 사이

O...요즘 학생회관 1층 휴식공간에서는 각종 타박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휴식공간 의자의 상당수가 등받이가 부러져 있어서 의자에 앉으려던 학생들이 뒤로 넘어지기 일쑤라고.

이에 대해 불편함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으나 의자는 그대로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의자등받이를 등에 붙이고 다니면 안 넘어 지러냐?"

#### 까마귀의 교훈(?)

O...날씨가 더워지면서 교내 곳곳의 정수기 주변에는 커다란 돌덩이(?)를 들고 서성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데.

알아보니,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해도 수압이 낮아 아무런 고개를 숙여봐도 물을 마시기는 쉽지 않다고. 이는 정수기의 유무실함을 드러낸 뿐이니.

이에 병속에 물을 넣어 물을 마셨던 지혜로운 까마귀 왈, "아까 그 돌 정수기에 집어넣어봐~! 그럼 물이 나올 까약? 까약~!"

#### 망치소리

O...요즘 정각원에서 명상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진정된 명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데.

계속해서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해활발과 공사의 소음이 학생들의 명상에 큰방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명상수업 시간에 들리는 것은 스님의 목탁소리보다 공사장의 망치소리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4행시로 얘기하니.

"망-망치야, 넌 너무 시끄러워. 치-치사하다. 조용히하면 되잖아. 소-소리를 좀 줄이면 시끄럽다고 안할게.

리-리얼리(Really)?"

## "은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 오는 12일까지 학생복지실에서 접수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복지실은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은사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보내기' 행사를 실시한다.

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학교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과 함께 소포로 발송할 예정

이다. 신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학생복지실에서 접수하며, 수신자 주소는 반드시 재직학교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사제간의 정이 메마르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봄농활...** 2000년 봄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농활)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총북 체전에서 진행됐다. 총학생회 주최로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진행된 이번 농활은 60여명의 학생들이 농사일에 참여하며 자연과 함께 마음껏 숨쉬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중 기자 roket123@dgu.ac.kr

## 조교제도 개선안 설문조사

### 신설 연구조교 급여 ... 학교재정 늘려야

조교제도 개선안을 놓고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영재·정치학박사 2학기 이하 원충)와 학교측과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원충은 지난 달 13일부터 9일만에 걸쳐 '조교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99학년도 조교제도 개선안인 '교수 1인당 1조교 제도'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조교제도 개선방안과 타협점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조사분석팀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교수 1인당 1조교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신설 연구조교의 급여 및 급여방식과 업무규정 △현행조교제도의 만족도 및 개선이유 △학력별 차등급여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행조교제도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에 따른 보수와 장학혜택이 미흡하고 그로 인해 연구할 수 있는 시간마저 부족하게 되는 문제 등의 이유를 들며 전

체응답자의 70%가 조교제도개선

을 찬성했다. 개선안의 내용 중 교수 1인당 1조교의 연구조교 신설에 대해 과반수가 연구조교라는 이름아래 공식적인 업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찬성했다. 반면 업무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잡무나 교수님의 사적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한 신설연구조교에 대한 급여방식 문항에서는 학교재정 증액과 교수의 보조증액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아 학교재정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불어 기존에 있던 조교의 급여삭감도 병행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원충은 설문조사 결과를 학내 곳곳에 대자보를 통해 대학원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생들에게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재 대학원총학생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었다"며 "그만큼 조교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백승석	하이텔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press
편집장	김진아	구독문의: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 2000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 교육대상**  
가. 기본훈련 8시간 : 전역 2~7년차 예비군 ('93~'98년 전역자)  
나. 소집점검 4시간 : 전역 1년차 예비군 ('99년도 전역자)
- 교육대상 제외자**  
가. 2000년도 전역자  
나. 92.12.31일 이전 전역자(전역 8년차 이상 예비군)
- 교육일정/장소**  
가.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자(전역 2~7년차)/노고산 훈련장(219연대)

5.15(월)	5.16(화)	5.17(수)	5.18(목)	5.19(금)
공과대 정보산업대 이부대 사회과학대 불교대 이과대 경영대 생명자원대 대학원 예술대 문과대 법과대 교직원 교직원	정보산업대 이부대 생명자원대 대학원	이부대 법과대	사회과학대 교직원	불교대 대학원

나. 소집점검 4시간 대상자(전역 1년차)/노고산 훈련장 (219연대)

5.22(월) 오후(13:00)	5.23(화) 오후(13:00)
공과대, 정보산업대, 문과대, 생자대, 법과대, 이과대, 대학원	불교대, 사과대, 경영대, 사법대, 이부대, 예술대

- 복 장** : 예비군복(전부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 휴대물** :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분실자는 예비군 연대에서 편식카드 복사
- 유의사항**  
가. 구과발 전철역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300m 지점에 서를 버스 대기  
-기본교육시 : 06:40-07:20운행  
-소집점검시: 11:40-12:20운행  
나. 개인자가운 운행가능(주차장완비)  
다. 08:00(오후교육자는 13: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위병소 통제)  
라. 예비군복중 1가지만 미착용해도 입소불가  
마.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사전 신고하여 일정 조정.  
※ 예비군 연대본부 연락처 : ☎ 2260-3073~4

### 예비군 연대

## 1학년 인적성검사 실시

- 취지 및 목적**  
대학생활 초기에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과 및 직업선택에 활용함을 물론 학생 개인의 자기이해도 를 증진시킴으로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자 한다.
- 검사종류**  
성격유형검사(MBTI) 20분 소요  
적성탐색검사 50분 소요  
다면적 인성검사(MMP I) 40분 소요  
학과와 직업선택을 위한 인적성검사 1시간 20분 소요
- 실시대상** : 1학년 재학생
- 실시방법**  
학과별, 동아리별, 그룹별로 접수→검사실사→ 해석 및 상담
- 실시기간 및 장소**  
5월 15일(월)~6월 16일(금) 중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검사 및 해석 비용** : 무료  
(단, 적성검사의 경우, 단축형 검사결과지는 무료로 받아볼 수 있지만, 완전형 검사결과지는 외부심리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비용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 4월 24일(월) ~ 5월 12일
- 접수처** : 학생상담실(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 전화로도 접수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검사일과 시간, 검사종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상담실

## 대학원 5월 강좌

- 어학 특강**  
1. ABSTRACT 쓰는 법  
가. 강사 : 조의연·Carolyn T. Dussere (동국대 영문과 교수)  
나. 일시 : 매주 월요일 늦은 6시~8시 (문화관 K310)  
다. 강좌내용 : 영문초록 쓰는 법  
라. 수강료 : 만원
  - 2. 일본어 독해**  
가. 강사 : 나경선(텍스외국어사 주임강사)  
나. 일시 : 매주 수요일 늦은 6시 30분 ~ 8시 30분 (문화관 K208)  
다. 강좌내용 : 일본어 독해 초급반, 중급반 과정  
□ 생활·문화강좌  
1. 칼라믹스  
가. 강사 : 이연령 (매직랜드 공방 강사)  
나. 일시 : 매주 화, 금요일 늦은 6시~8시 (학술관 K214)  
다. 강좌내용 : 칼라믹스 실습 (작품 7개 정도에 실자수 강좌 포함)  
라. 수강료 : 4만원 (재료비 포함)
  - 2. 테니스**  
가. 강사 : 서상일(타워호텔 테니스 코치)  
나. 일시 : 매주 화, 목요일 늦은 5시~7시 (타워호텔 테니스장)  
다. 수강료 : 2만원
- 접수기간 : 4월 24일 ~ 5월 4일  
○ 강의기간 : 5월 8일 ~ 6월 2일  
○ 인 원 : 선착순 15명  
○ 접 수 처 : 대학원 총학생회실 (학술관 지하 1층)  
☎ 2260-8761

## 제16대 대학원 총학생회 후원: 동국대학교 생활 협동조합

## 2000년 졸업앨범 촬영 2차 공고

날짜	5월9일(화)	5월10일(수)	5월12일(금)	5월15일(월)	5월16일(화)
10시	건축공과	토목공과	수학교육	국문과	지리교육
	생명자원	식품공과	가정교육	인도철학	행정
	응용생물			선학	산림자원
1시30분	회계(주,야)	컴퓨터공과	복합(야)	전산통계(야)	식물자원
	국민윤리		반도체(야)	정보통신공과	사회
			역사교육		경찰행정
날짜	5월17일(수)	5월18일(목)	5월19일(금)	5월25일(목)	5월26일(금)
10시	통계	철학	산업공과	화학공과	미술
	정치외교	연극영화	독어독문	교육학	화학
			수학		
1시30분	전자공과	물리	정보관리(주,야)	경영(주,야)	경제(주,야)
	불교	사학			일어일본
날짜	5월29일(월)	5월30일(화)	5월31(수)		
10시	국제통상(주,야)	법학	기계공과		
			국어교육		
1시30분	영문(주,야)	신방(야)	전기공과		
	중문(야)	광고(야)	체육교육		
			아시아지역학		

\* 위의 일정 변경을 불가피하게 원하시는 과는 출/준/위로 연락 주십시오(☎ 2260-3613)

## 제12대 졸업준비위원회

동약로

동국발전과 자비



“빨리빨리 움직이자. 그건 거기 놓고, 저건 저기 놓고...”

지난 1일 오전, 불상앞 광장에는 몇몇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불상주변을 꽃으로 장식하는가 하면, 의자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등 분주해 보였는데 바로 '불교도주간축제' 준비 때문이었다. 이런 부지런한 준비 덕인지 4일간 진행된 축제기간 동안 중앙도서관 건물앞에 자리잡은 무료 차보시, 컵등제작, 불교용품가판 코너 등은 행사장 주변을 찾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행사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었고, 실내악단 공연, 불꽃놀이 등의 불상앞 중앙행사는 오히려 발걸음을 잠시 쉬어가게 했다.

그러나 '불교도주간축제' 기간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24일간의 분관 접거를 해제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불상앞 광장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가 축제시작과 함께 사라졌던 집기들은 맨 처음의 자리를 찾아 본관의 기회실에 자리잡았다.

“총장님이 학생복지환경개선과 교육환경개선을 진두 지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국발전에 관해서도 함께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본관에서 접거능성을 했던 총학생회는 송석구 총장과 대화를 통해 등록금 협의의 마무리 짓고 24일간의 농성을 정리한 것이다. 인상된 등록금의 2%반환과 더불어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으로 분관접거능성을 해제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동안 서로 자기의 입장에만 서서 다른 쪽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금씩 양보하고 한발씩 뒤로 물러나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올해로 불기 2544년을 맞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와 이타심의 실천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는 총학생회를 믿고, 총학생회는 학교를 믿는 관계의 성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송석구 총장과 이승복 총학생회장이 마주 잡은 손이 걸로로만 드러내는 화해와 협력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자비와 이타심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기를 기대해본다.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 총파업투쟁 결의 노동자대회 열려

## 주5일 근무제·IMF피해 회복·구조조정 중단 요구

세계 노동절 제110주년 기념 '대정부 교섭촉구 및 총파업투쟁결의 노동자대회'가 지난달 29일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동자, 농민, 학생 등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5일·40시간 근무로 노동시간 단축 △IMF피해 원상회복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과 자동차사업 해외매각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2년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잘못된 정치를 해왔다"며 "민주노총이 내세운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5월 31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역에서 집회를 마친 대회참가자들은 명동을 거쳐 종로 2가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으며, 보신각 앞에서 '대정부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이희철·조선대 총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어떻게 폭력탄압에 항의하는 노동자, 학생, 시민에게까지 곤봉과 방패를 휘

두르며 무차별 폭력을 가하느냐"며 "새로운 집회풍토 조성과 최루탄을 자제하겠다는 것은 김대중정권의 폭력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국민기만이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전국학생회협의회는 "정권은 언제나 그들을 부정하는 우리들의 투쟁을 탄압이란 이름으로 막아서지 않은 적이 없었고, 자본가 정권의 오늘의 탄압이 우리들의 더 큰 단결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주5일 근무제의 타당성은 최근 정부당국이 추진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와 공무원 격주 휴무제 등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국제노동기구 가입국 가운데 일곱 번째라는 통계만 보더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은 곧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고 이는 국민복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노동절 시위의 폭력성은 방법상 잘못이 있으나 그보다 노동자의 요구가 민중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윤미 기자  
junjigja@hanmail.net

### 제천농민 김태훈씨를 만나

## “땀흘려 일해도 남는게 없다”

### 정부지원 전무...빚더미에 앉은 농민



김태훈(35)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최악'입니다. 지금의 농민은 하루하루 살기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그저 일만 할 뿐입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충청북도 제천시 구곡리에 불농회를 다녀오면서 제천 농민 김태훈(35)씨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 내내 한숨을 쉬며 현재 농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다시피 털어놓았다.

- 정부의 지원은 어떤가?  
= 농기계보조사업 등의 혜택이 정권교체 전에는 있어 도움을 받았는데 현재는 전무한 상태이다. 면세율도 현재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고 의료보험료는 도시와 별반 다를바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한 농가부채대책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있다.

- 농가부채는 얼마나 심각한가?  
= 일년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소득은 커녕 빚만 계속 돌아온다. 가구당 빚이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되며 부채 상환일을 연기하거나 연체자 대출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IMF 한과 이후로 환율폭락에 따른 사료, 비료, 농약 등 원료비 폭등으로 인해 농가는 빈사상태에 빠졌다.

- 가격을 제대로 받는가?

=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지만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이다. 사실 재값만 받고 판다고 해도 한숨 돌릴 정도다. 얼마전 구제역 파동 때도 축산물을 팔지도 못해 사료값만 늘어가는 축산농가들은 가축사육을 포기하고, 부채상환 압박을 견디다못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일손은 얼마나 부족한가?  
= 점차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농가연령이 고령화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구곡리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나일 정도다. 일년에 두번 정도 쓰는 농기계 가격은 2·3천만원을 호가해 구입이 힘들며 일손부족으로 농가식구 전체가 농사일에 참여한다.

- 아쉬운 점은?  
= 농가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 김대중 정권에대해 선거운동을 할정도로 기대를 많이 했었다. 그러나 '빚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농민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 누구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농민이다. 젊은 농민이 많았다면 항의집회 등을 활발하게 열고 더욱 강력히 대책편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현중 기자  
rocket123@dgu.ac.kr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학생법정

# 사죄하라! 우리가 심판한다

## 일본정신대 문제 청산을 촉구하는 모의법정 열려

정신대 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개최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학생법정'이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렸다. 1년 4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선보인 이번 행사는 그동안 한번도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성노예 범죄를 공론화 하여 단호히 처벌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 검사 = 피해자 한서린씨는 피고 오쿠노 다다시씨에게 어떠한 피해를 보았습니까?  
△ 피해자 = 배급을 타러 갔다가 갑자기 다가온 일본군인한테 그대로 납치되어 슬라바야 위안소로 끌려갔지. 거기서 처음 나를 욕보인 것이 저기 오쿠노 놈이야. 그 당시 저놈한테 맞은 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

한번은 참다참다 못해 옷도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위안소 밖으로 도망가던 내 허리를 깨머리판으로 내리쳐 허리와 엉덩이가 이모양 이꼴이 되었지. 나는 50년이 넘도록 귀가 멀어 있는 바람에 평생을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여자 혼자 산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

△ 변호인 =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증인은 과거사실에 대해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감정적인 측면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 재판장 = 인정합니다. 증인은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십시오.

△ 검사 = 피고는 일본육군에 입대하여 사건의 발생 시기인 1942년 4월경에 자바섬 제3군수지원사령부 경비중대장으로 복무했죠? 당시 피고가 부대 내에 있던 위안소도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 피고 = 예 그렇습니다. 부대내 위안소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스스로가 성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소를 만들었고, 또 그것은 성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성병이나 성범죄 등으로 인한 병력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죠. 그리고 그것이 단지 부대내에 있으니까 부대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군이 적극적으로 위안소를 만들고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천황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판에 그까지 몸 파는 것쯤이야 무슨 대수라구. 그리고 당시에 일본은 공창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 와있는 여성들이 몸 파는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없다고 생각해요.

△ 검사 = 다음은 피고가 위안소에서 행한 구체적 행위에 대해 증언을 해줄, 사건 당시 피고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가네다 케이시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 재판장 = 증인 신청을 인정합니다.  
△ 검사 = 증인은 당시 부대 내에 있던 위안소에 끌려온 여성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 예 사실입니다. 성전을 수행하는데 남녀가 따로 없다고 한다지만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매일 수십 명의 남자를 상대하고 규율에 조금만 어긋나면 심한 폭행이나 고문까지 당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인간적 비애와 자기혐오를 강하게 느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군대로 끌려온 위안부들에게 인권은 커녕 생명을 가진 하나의 최소한의 인격체로서도 인식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 검사 = 1942년경 증인과 함께 복무한 피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증인 = 저 친군 부대원들을 비롯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난폭하고 가혹했어요. 특히 포로와 위안부들을 매우 거칠게 다루었지요. 한번은 저 여인이 위안소를 뛰쳐나왔던 적이 있는데 알몸으로 뛰쳐나온 사람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는걸 보았어요.

△ 검사 = 이상입니다.  
△ 재판장 = 다음은 변호인 신문 시작하세요.  
△ 변호인 = 과거 1941년 자바섬으로 발령 받아 갈 때 피고와 증인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때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 증인 = 그건 저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이의제기였습니다.  
△ 변호인 = 군생활중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텐데 증인은 군생활 하는내내 피고를 볼 때마다 감정이 혼란스럽지 않았는지요. 혹시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 궁금하군요. 이상입니다.

△ 재판장 = 이것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고문 학대 등의 반인도적인 행위와 증거인멸을 위한 문서소각, 위안부 현지유기치사 행위와 일본정부의 위안부제도 개입여부 등을 피해자 증인과 피고 그리고 증인의 진술을 통해 본 사건기소의 사실관계를 보았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최후 변론을 해 주십시오.

김윤미 기자  
junjigja@hanmail.net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와 전략 논단

평화 · 통일지향하며 연속성 갖고 접근해야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의제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세기 간의 미해결 과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의제와 우선 순위를 두고 적지 않은 씨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당사국 간의 합의도 쉽지 않았지만, 대내적 의제 수렴 과정과 미일과의 의견 조율에서도 벌써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로써, 이후 뜻하지 않은 돌출 변수를 통제 범위에 놓고, 국내외 냉전주의 세력의 발호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붙이질 수 없는 대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튼튼한 안보 활용

우선 포용정책의 군사적 기반인 '튼튼한 안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냉전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을 앞지르고 있고 북한의 자포자기식 전쟁은 김정일의 정책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외 냉전주의 세력의 비판을 흡수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북전략의 수정

둘째로 '경제 좋게 군사 다오'식의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한미일에는 경제적 지원을 유인책으로 사실상 북한에 일방적인 군축을 강요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군사동맹체제의 상실과 군사적 열세에 놓인 북한의 우려는 경제난 못지 않게 안보 불안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면 군사적인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한미일이 이에 걸맞은 긴장완화 조치를 할 때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북·미·일 사이의 중재자로서

셋째, 미일군사동맹의 대북억지력 강화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지대와 미사일 발사 실험 유보를 재확인하여, DJ가 북한과 미일 사이에서 핵·미사일문제에 대한 갈등 해소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냉전구조 속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을 동시에 견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 해결

넷째, 북한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주한미군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정한 안중우지자의 역할을 할 경



정 옥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우 미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 역시 90~92년 7천명 감축에 이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2단계 감축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불가침과 비핵지대를 재확인한다면, 미국에게 2단계 감축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미군주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원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보다 부합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국가의 우려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어느 한쪽만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하나를 추구할 경우 다른 하나를 놓치는 제로섬적 방식과는 다르고, 자칫 '평화에 대한 여행'을 불러올 수 있는 급진적인 방식이 아니면서도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본적인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교 94주년을 맞이하며

오늘은 구한말 불교지도자들이 불교정신에 바탕을 두고 설립한 우리 동국대학교가 개교 94주년을 맞는 날이다. 어린 1세기를 바라보는 세월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불교종립 종합대학의 거목으로 우뚝 서게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니고, 모든 동국 구성원들의 일심동체로 일구어낸 피와 땀의 결실이다.

우리 모두 불은(佛恩)에 감사해야할 것이며 서로에게 경하의 메시지를 전해야 마땅할 일이다.

작금의 축제가 더욱 무르익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동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청사진 작성에도 우리 모두 동참하여 더욱 알찬 것으로 꾸며야 할 의무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세기가 바뀌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오늘 우리는 소위 '질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의 장'에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시대의 대학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지, 정보와 기술의 집산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국면에서 발전적 선도자가 되어 주길 요청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때문에 간간히 지금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책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시대, 국경 없는 시대, 지리의 종언(End of Geography)이라 불리는 오늘날, 세계적인 지식과 정보 교류가 더욱 개방적으로 되어 간다. 따라서 국내적, 범세계적 대학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적 시간-공간의 압축시대(Time-Space Compression)의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우리 동국대학교도 피해야 할 수만은 없는 듯하다. 차체에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 과제를 열거해 보자.

첫째, 무엇보다도 발전의 동인을 직접 제공해줄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일이다.

다양한 방법 및 제도를 통한 적극적 입학과 홍보, 입학·졸업 인센티브제의 적극적 활용, 기숙사의 보다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한 학원 공동화 현상의 방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과 커리큘럼의 경쟁력확보이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장교육, 세계화 마인드의 확산, 사례중심연구, 정보네트워크적 훈련등 실용적 교육을 통한 학문적 경쟁력의 강화와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선린관계 확대 및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이다. 지역사회를 떠난 세계화는 사상누각이다. 특히 지방화 시대의 지방 캠퍼스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화시대의 표어인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학의 본질적인 4대 기능 즉, 교육기능(teaching), 연구기능(research), 훈련기능(training), 봉사기능(service)에 보다 충실히 접근하려는 결단한 자세가 될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 동국대학교는 지난 90년대 이래로 안으로는 중장기발전계획과 경영합리화, 교육환경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밖으로는 문공과 학부도, 불교계, 기업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발전기금을 확충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의 결실은 몇몇 동국인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전 동국인 들의 공동적 노력만이 이것을 가능케 할 것이며, 그 결실의 기쁨도 함께 누리야 할 것이다.

시대적 요구가 과중하다하여, 모험이 있고 힘이 든다하여, 21세기의 주역으로 살아 가야할 우리 동국인 들이 의기소침해 할 수만은 없다. 누군가 나 대신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내태함과 안이함, 설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겠는가하는 경솔함과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우리 동국인의 자기성찰 노력은 조직의 화합으로 이어지고, 동국인 전체의 발전적 위상 또한 확고히 정립될 것이다.

전략적 사고의 필요

전략적 사고의 핵심은 △포용정책의 '기정사실화' △안보딜레마 극복 △평화에 대한 여행 가능성 차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정상회담을 한 '시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과 회담, 그리고 이후 과정이 평화·통일지향적인 고도의 연속성을 갖는 '과정'으로 접근함으로써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하청업체 전략·경쟁력 상실... 제2의 IMF우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 필요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총선 시기의 여야 후보들은 온데 간데 없고, 정부는 '삼성자동차의 르노 매각'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미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반발하는 '전국금속산업노조조합연맹'(대표=문성현, 이하 금속연맹)은 '해외매각 반대를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5월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없이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 대우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금속연맹의 김희준 상근부위원장은 "대우자동차가 해외매각 될 경우 대우자동차의 독자적 기술발전을 기대 할 수 없으며 외국기업의 단순 하청업체가 될 뿐, 장기적으로 한국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갖고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제너럴 모터스(GM)사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경우, 대우자동차의 부평 공장을 가동 할 확률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이미 GM사는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자동차생산능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은 가동할 필요가 없어지며, 그에 따라 자동차업체는 불가피하게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게다가 아직까지 외제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고르지 않지만 GM사의 제품이 대우의 이름을 달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자동차업체는 외국 거대업체들끼리의 기술제휴에 밀려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외국 자본에만 의존해서 국내 기업을 운영한다면 해외채권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금회수를 할 때 우리는 다시 제2의 IMF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김희준 상근부위원장은 말한다.

결국, 대우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초국적 자본이 아니라, 투명한 경영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모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거대한 부실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아무

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희준 상근부위원장은 "정부는 더이상 해외매각으로 달려를 끌어들이는 단기적인 효과에 눈이 가려 멀리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기업화하거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체제'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내실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starfeast@hanmail.net

2000학년도 후기 대학원 특별전형

계 열	석사 학위 과정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한문(경주),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경주), 농업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농, 임, 응용생물, 조경(경주), 가정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농, 임, 응용생물, 가정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계산(경주), 기계공, 안전공(경주), 정보통신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기계공, 정보통신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의학계	한의(경주), 의(경주)	
학과간 협동과정	멀티미디어(연극영화, 경영, 전자공, 컴퓨터공)	

과정	계 열	모집 학과	비 고
석사 공학		영상제작학과	• Flame과 Maya 40대 보유
		멀티미디어공학과	• 30여억원을 들여 설립한 첨단 산업체
		네트워크관리학과	수준의 미디어아트센터 운영

분야	사업(팀) 및 연구센터	선 정 학 과	특 전
인문사회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원	불교학과	학과별 선발절차
핵심사업	5개 사업팀	연극영화, 화, 전자공, 토목공, 화학공학과	거취 장학금 지급
		물리, 반도체과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SRC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		
ERC	멀티미디어기술 연구센터	전자공, 전기공학과	

- 모집인원 : 각 학과별 약간명
  -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함.
  - ◆ (경주)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 ◆ 석사과정 화, 응용생물, 가정학과는 서울, 경주캠퍼스 공동개설 학과임.
  - ◆ 석·박사과정 공히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에 관계 없이 전학과 응시가능.(한의, 의학과는 제외)
- 지원자격
  - 가.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00년 8월 취득 예정자.
  - 나.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2000년 8월 취득 예정자.
- 제출서류 : 모집요강 참조
- 전형방법 :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 지원서 교부일시 및 장소
  - 가. 교부일시 : 2000. 4. 27. (목) ~ 5. 12. (금) (09:00 ~ 17:00)
  - 나. 교부장소 : 서울 - 학술관3층 대학원교학과, 경주 - 진흥관1층 지역개발대학원내 대학원 교학과 (단,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17시이후는 각 교부장소 해당건물의 수위실에서 교부함.)
- 지원서 접수일시 및 장소
  - 가. 접수일시 : 2000. 5. 9.(화) ~ 5. 12.(수) 09:00 ~ 17:00 공휴일은 제외
  - 나. 접수장소 : 교부장소와 동일
- 전형일시 : 2000. 5. 19.(금) 10:00

인터넷 주소 : <http://www.dongguk.ac.kr> 내 대학원 홈페이지,  
E-mail : [bskk@dgu.ac.kr](mailto:bskk@dgu.ac.kr)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 2260-3094~5, 3116, FAX 2260-3685)로 문의바람.

제2회 전국 고등학교 방송작품 경연대회

동국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94주년이 되었으며, 교육방송국(DUBS)이 1969년 첫 방송을 시작한지 4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또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방송 제작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고 협동심을 기르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 창달과 고등학교 방송문화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전국 고등학교 방송작품 경연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명칭 : 제2회 전국 고등학교 방송작품 경연대회
- 참가지역 : 전국 고등학교 학생 방송반 또는 영상 동아리
- 참가부문 : 오디오, 비디오(영상물)
- 작품내용
  - 가. 고교생들의 꾸밈없고 발랄한 의식이나 삶, 화목한 가정, 건강하고 재미있는 학교생활, 또는 지역적, 사회적, 교육적인 특별한 소재로서 방송이 가능한 내용으로 한다.
  - 나. 구성(포맷)은 종합구성, 일방구성, 취재구성,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창작물이여야 한다.
- 작품 길이(RT)는 10분~15분으로 한다.
- 심사기준
  - 가. 심사는 작품의 주제의식, 내용구성, 연출, 연기, 녹음기술, 음악, 음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독창성, 건전성, 교육현장의 사실성 등을 우선한다.
  - 나. 모방 작품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은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다. 작품 길이가 제한된 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면 감점한다.
- 심사위원
  - 본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연극영상학부 교수 및 기성 방송국 방송인
- 시상과 특전
  - 가. 시상
    - 1) 대상 : 오디오/비디오(영상물) 구분 없이 1팀 - 상패와 장학금 100만원
    - 2) 금상 : 각 부문별 1팀 - 상패와 장학금 50만원
    - 3) 은상 : 각 부문별 1팀 - 상패와 장학금 40만원
    - 4) 동상 : 각 부문별 1팀 - 상패와 장학금 30만원
    - \*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상을 시상할 수도 있음

- 지도교사상 : 1명 - 상금 30만원
- 특전
  - 1) 대상 수상자가 2001학년도 본 대학교(서울캠퍼스)에 입학할 경우, 1년간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2) 본 대회 입상자가 2001학년도 본 대학교(서울캠퍼스)에 입학하여 교육방송국 국립 모집에 응시할 경우, 우선 선발하며, 수습 기간 만료 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접수 및 심사일정
  - 가. 접수기간
    - 2000년 8월 11일(금) ~ 8월 18일(금) (우편접수 8.18 소인까지 유효)
  - 나. 제출 서류 및 테일
    - 1) 참가신청서 1부(학교장 날인 필수) - 소정양식
    - 2) 작품이 녹음된 카세트 테일 또는 녹화테일
    - 3) 방송작품 기획서 1부(지도교사 추천 및 날인 필수) - 소정양식
    - 4) 작품원고 1부(A4용지에 원고 집필자, 출연자 등 방송작품 참여자 모두의 성명과 역할을 기재할 것)
  - 다. 접수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방송작품 경연대회 담당자
    - 라. 작품심사 : 2000년 8월 23일(수) ~ 8월 30일(수)
    - 마. 심사발표 : 2000년 9월 5일(화) 예정
    - 바. 시상식 : 2000년 9월 23일(토) 예정
  - 기타
    - 가. 입상자의 방송권은 입상작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본 방송국(DUBS)이 갖는다.
    - 나. 낙선된 작품은 입상작 발표후 10일 이내, 직접 방문자에 한하여 반환 한다.
    - 다. 작품을 우송할 경우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며 결봉투에 '방송작품 재증이라고 주시' 할 것.
    - 라. 문의 전화는 (02)2260-8501 ~ 8503 / FAX : (02)2260-8504이며 참가안내서, 신청서, 작품기획서 등을 본 동대방송국(DUBS) 홈페이지 <http://dubs.dgu.ac.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서울캠 교육방송국

우리 학교 벤처 기업은?

서울캠 FRONTIER

98년 5월부터 벤처 창업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지속해온 FRONTIER(회장=이성민·산업4)가 99년에 신규 동아리로 등록하면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본교 재학생 45명으로 구성된 FRONTIER는 기획·개발·마케팅·교육·총무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리눅스와 웹 디자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주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힘쓰고 있다.

무비랜드(MOVIELAND)

영화 체험 사이트 '무비랜드'(대표=원종성, http://www.movieland.co.kr)는 일반 영화 사이트와 달리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보면서 '현장감'을 느끼도록 차별화하고 있다.

게다가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부각하고 있다. 개봉중이거나 예정인 영화·배우·감독·극장·음악 제작사 등 다채 분야로 '모의 주식 투자 게임'을 운영하여 네티즌들의 흥미를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영화의 인기도와 흥행 가능성 등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본교의 북한학과 영화소모임과 칸전츠를 통합해 5월 중순 경부터 북한 영화도 인터넷을 통해 개봉 할 예정이다.

함께

'함께'(대표=김원일, 최창환)는 KBS와 한국통신에서 만든 크레디트 인터넷 방송에서 건강·미용·다이어트·신용카드 관련 등 4개의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특한 운영 방식을 자랑하는 신용 카드 방송국(http://www.cardluck.co.kr)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를 주고 상담을 해준다. 그리고 공중파와 결합한 인터넷을 통해 신용 카드 복권 추천방송을 생중계한다.

공급자에 관한 정보와 사용자의 견해 그리고 전문가의 평가 등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 안에서 '비교 쇼핑'을 하게 하는 것이 '함께'사가 추구하는 바이다. 현재 모든 방송은 KBS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경주캠 어드벤처

본교 4명의 학생들이 모여 만든 학생벤처기업 어드벤처는 지난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후 스포츠 스타의 애장품 및 소장품을 네티즌들에게 경제 형식으로 제공하는 '스포츠마케팅' 등 웹사이트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창업센터 개소 이전부터 벤처 동아리를 운영하며 내실을 기해오던 어드벤처는 동아리 시절 교육과 정보부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발전을 거듭해 학생 신분으로 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창업센터 입주 이후에 비품 구입, 새로운 인력구입, 내부정비로 인해 뚜렷한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으나, 전반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마친 지금이 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학생 신분이라는 이점을 살려 실패도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패기가 큰 기대를 걸어본다.

대학내 창업 보육센터 현황

창업 보육 센터가 해야할 일은 무엇?

대학내 인프라 구축·활용 ... 신학협동과 기업 연계로 고용창출 도움

서울캠 창업지원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직접 창업해서 승부를 걸겠다는 소위 벤처 열풍이 확산됨에 따라 대학들이 창업보육센터를 개관·운영하고 있다.

작년 8월 정부의 벤처 육성책에 따른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직 교수와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창업의 길이 열리면서 캠퍼스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교 또한 작년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에 멀티미디어·문화예술분야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3월 창업보육센터와 인터넷 창업보육센터를 통합하는 창업지원단을 구성하였다. 현재 동국대 2층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신설되어 두 차례에 걸친 입주 기업 선발을 통해 총 30여개의 업체들이 입주한 상태이다.

창업지원단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벤처 가능성을 알리고 더불어 동국인에게 벤처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에는 도자기,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의 업체들이 입주했고 'netsia' 'ether' 등 13개 업체들의 경우 재학생 혹은 본교의 동문들로 구성되었다.

시작단계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산학협동과 고용창출의 효과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력에 한계를 느낀 벤처 기업이 어려움을 부딪쳤을 때 전문분야 교수와 연계를 맺어주는 '자문교수제'는 산학협동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창업지원단(단장=이종욱·정보관리학) 행정지원팀의 관계자는 "본교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것과 탄탄한 시설 점수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타대학에 비해 정신방이 잘 구축되어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러 대학에서 대학 인프라 이용의 한계점과 각 보육센터마다 입주업체의 질적수준이 상이한 점 등을 비롯해 학교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협력체제 구축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본교의 경우 선발주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 등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

지난해 10월 개소한 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는 현재 14개 업체를 보육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이달 말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얼마전 마감된 5차 입주업체 모집에서도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창업센터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창업센터에서는 이들 업체의 발전과 보육을 담당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실무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전담 지도교수 배정, 감사초빙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공공자금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법

률교육, 법인화교육, 경영컨설팅, 인터넷방송교육 등 벤처 보육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 기업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입주문의와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교 보육센터의 입주업체들은 행정적 분야는 물론 그의 많은 분야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보육센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처리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듯 벤처 기업 지정이나, 혹은 보육센터 설립 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기업이 도태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벤처기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모두들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이는 본교 보육센터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의 입주업체 모집 경쟁율이 5:1인데 반해 얼마전 5차 입주업체 모집 당시 보여진 2:1의 경쟁율은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는 듯 하다.

그러나, 물론 2:1의 경쟁률이 쉽다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비해 호응도가 조금 낮아졌다는 것일 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공공자금이다. 정부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보육센터 설립당시 약속한 지원금을 제때 보조해 준다면 보육센터는 물론 입주업체 역시 마음놓고 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육센터는 정부의 변함없는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덧붙이자면, 창업센터는 교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학사업무와는 별개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학사업무체제와 보육센터의 운영체계를 역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서로 독립된 체계를 이루어간다면 보육센터는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미혜 기자 kal@mail.dongguk.ac.kr



2000년도 국비유학생 선발계획

- 1. 선발인원 및 일정
가. 선발인원 : 50명
나. 선발일정
2. 선발시험 실시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전공별·국가별 선발예정 인원
가. 학위(석·박사)과정
나. 전공(선발예정인원, 유학금, 외국어시험과목)
다. 이학계 : 생물학(2.미국·영국·영), 지구과학(2.미국·캐나다, 영), 수산 및 해양학(2.영국·호주, 영), 농학·원예학(2.뉴질랜드·일본, 영·일본), 약학(2.미국·일본, 영·일본), 수의학(2.미국·호주, 영), 대기과학(2.일본·영국, 일본·영), 천문학(1.영국, 영), 통계학(2.미국·영국, 영)
라. 공학계 : 건축공학(2.프랑스, 영국, 프랑스어, 영), 항공우주공학(2.러시아·미국, 러시아어·영), 식품공학(1.일본, 일본어), 산업공학(1.독일, 독일어)
4. 지원자격
가. 학위(석·박사)과정
나. 지원자격
다. 지원자격
5. 기타사항
가. 선발시험의 세부실시에 관한 사항은 추후 시험실시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고·시행함.
6. 본 선발계획은 국제교육진흥원 Home page(http://www.interedu.go.kr)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유학연구소원과 ☎(02)3668-1381, 1375)로 문의하시기 바람.

Table with 4 columns: 전공, 인원, 과목, 비고. Rows include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and 4. 선발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Table with 4 columns: 구분, 방법, 과목, 배점, 비고. Rows include 제1차시험 필기, 제2차시험 필기, 제2차시험 면접.

국제교육진흥원

2000년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삼성사회봉사단은 참신하고 진취적인 대학생 동아리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공모하여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1. 모집 프로그램 :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 130개 정도
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가. 대상자 : 회원대학 대학생 동아리의 기존 또는 신규 자원 봉사 프로그램
나. 지원대상 :
3. 신청절차 :
가.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2부(소정서식)
나. 봉사활동계획서 2부(소정서식)
다. 서식비치 : 각 대학 학생회 또는 사회봉사 담당부서
4. 신청기간 : 2000. 4. 20 ~ 5. 20(1개월간)
5. 혜택 :
가. 프로그램 참여자는 2001년 대학생 해외봉사단 참가 우선
6. 문의처 :
가. 대학 사회봉사 담당부서(동국참사랑봉사단 본관3층) Tel : 2260-3049
나.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T:(02)783-9860 F:(02)783-9859
다. 삼성사회봉사단 T:(02)2259-7543 F:(02)2259-7814
6. www.samsung.co.kr

후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교육부
협찬 : 삼성생명

벤처기업 창업에서 성공까지

# 21세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중소 기업 벤처'

## 수익모델연구·경쟁력 강화 통해 벤처인프라 구축 필요

### 새로운 경제여건 속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우리의 평균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시장이 좁을 것,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기업, 상당히 위험한 기업, 즉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업이거나 혹은 성공확률이 대단히 낮은 기업,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통신업을 하는 기업, 최근 엄청난 부를 축적한 기업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란 새로운 화두(話頭)가 나타난 것은 아마도 IMF이후일 것이다. IMF의 원인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깊이 연구될 사안이지만 1997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H그룹, K그룹 등 소위 말하는 재벌그룹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즉 각각의 그룹이 무너질 때 마다 국가신인도 유지를 위하여 개별 기업을 위하여 몇조원 씩의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도 수많은 실직자를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때 얻어진 충격 중에는 철용성이라고 생각했던 은행, 심지어 정부조차도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길만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만이 21세기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적응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새로운 경제여건이란 정치적으로 공산이데올로기의 몰락을 통한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등장,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의 개편, 인터넷사업으로 상징되는 통신과 정보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이로 인한 경제여건의 변화, 다품종소량생산의 확대, 제품공급시간에 대한 단축요구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벤처기업에 눈을 돌리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

###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기업

인터넷 황제라고 불리는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손정의 사장은 경제흐름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70년대는 Analog시대'로서 이 시대의 대표기업은 Philips사나 Sony사 같은 제조우위의 기업, '80년대는 Analog Service시대'로서 AT&T사 같은 통신사업자가 우위를 점하는 시대로, '90년대는 Digital시대'로서 Microsoft사 같은 디지털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공하며, 2000년대는 이때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모델, 즉 인터넷사업이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 사업의 시장규모(Market size)는 기존의 사업규모 전체를 능가하는 규모로 판단되지만 유감스럽게 이 사업은 그 자체로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따라서 미래사업의 비전은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발전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며 손 사장은 이를 위한 사업추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인터넷사업의 핵심기술을 가진 루스텐테크놀로지, 미디어기능을 가진 타임지, 인간의 감성 중 하나인 시청각이 주류를 이루는 전시사업체인 컴텍스, 인터넷통신사인 야후지앤 등 인터넷을 떠받치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이를 연결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목표에 접근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때 투자하는 내용은 대체로 자본 20~25% 정도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모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기업 성장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벤처기업지원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 벤처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은 각종 규제완화, 정책자금 지원, 세금감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후 2년은 법인세와 소득세 50%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각종 정책자금 배분시 가점제도를 통한 우선권 부여, 코스닥등특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규제조항 완화 등이 지원정책의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벤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은 사실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란 크게 4가지로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우수사업성평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

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이며, 미국의 경우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거나 혹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사업형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떤 제도의 속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만의 경우 우수기업이라고 정부에서 2년 마다 인정하는 경우를 벤처기업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물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3% 이상이면 벤처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도 역시 임의로 판단할 문제이다. 결국 벤처기업인증제도가 법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다.

벤처기업인증제도를 만든 이유는 정책집행속도를 좀 더 빨리 진행시키는 측면과 실질적인 벤처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법제화하는데 있다. 달리 말하면 가령 금융권을 통한 간접지원정책을 추진코자 하여도 우리의 금융관계자들은 과거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령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이라면 좀 더 쉽게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증제도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이 법은 2008년 까지만 존재하는 한시법이다. 현재의 법과 제도로 인정되는 벤처기업은 2000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6천개 정도이다.

### 사업수익모델 필요

그렇다면 벤처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어떻게 다른가? 필자의 전공인 종이제조공장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종이 제조의 경우 톤당 제조설비를 갖추는데 약 2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종이제조공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통상 일산 5백톤 정도의 설비를 갖추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때 필요한 소요자금은 2억원×5백톤=1천억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을 투입하여 소위 말하는 경영의 3요소인 자본, 토지, 노동을 투입하면 톤당 약 7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하루에 약 3.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년 중 300일 정도를 가동하면 약 1천 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된다. 이 중 수익은 재료/노무비 등 약 5백억원, 유지보수비 및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등을 종합하면 매년 약 2백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는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벤처기업의 경우는 초기자본금 약 1억원 정도에서 출발하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자본증식을 통하여 즉, 신주발행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기업의 실적이나 향후성장가능성을 보고 현재의 주식 발행가격(대개 5백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모집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여러번 반복하여도 원래의 자본이 줄어들지 않지만 경영

권 방어에는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업운영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까 예를 든 1천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사업형태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미래가치를 알리는 기업소개(IR)가 사업진행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소위 말하는 사업수익모델(Business Model)이라는 용어로 함축된다. 기업경영 면에서 과거의 기업에서는 불량률의 감소나 생산성의 향상 등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벤처기업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 즉 재무이사(CFO)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 건강한 벤처정신으로 인프라 구축

국내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6천개 정도지만 실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그 중의 약 40% 정도이다. 최근 코스닥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경우이나 가능한 일이다. 닷컴기업의 몰락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은 실력이 형편없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예고편이라 보면 된다.

아직도 대부분의 유능한 인재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돈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기업창업에 참여하고 머릿속에 들어 있는 좋은 기술을 상품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벤처인프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동되지만, 오로지 일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만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것이 시장논리니까.

최정현  
스미트엔젤클럽 사무국장

### 테마상식 - 벤처 관련 용어

#### ▶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흔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자본과 기술집약형 사업으로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면에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국내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창업투자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분류.

#### ▶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자본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무담보로 투자한 후 이 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자금을 회수하는 투자회사. 국내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 ▶ 나스닥(NASDAQ)

1971년 미국에 개설된 세계 최초의 전자주식 장외시장. 상장회사수는 5천1백여개로 세계 1위이고 주식거래량은 2조 3천9백 82억달러(95년말 기준). 주로 창업 초기 기업들이 이 시장에 공개되고 있다.

#### ▶ 코스닥(KOSDAQ)

미국 나스닥을 본따 만든 국내 주식 장외시장. 96년말 현재 등록 회사수는 3백8개.

#### ▶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

회사가 일정기간에 자기 회사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주는 제도. 임직원이 자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 ▶ 기술보험제도

기업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보험을 통해 분산시키거나 줄여주는 제도.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 ▶ 기술담보제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이 제도는 지적 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품의 설계 개발 제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도 유·무형재산가치로 평가,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대상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3% 이상인 기업이 될 전망이다.

#### ▶ 엔젤 투자

엔젤(Angel)은 창업 초기단계(early stage) 기업에 천사처럼 나타나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 투자자를 지칭하며 창업직후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지원과 경영에 관한 자문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전환한지 7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을 지칭하며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주는 투자자로서 비즈니스엔젤(Business Angel) 혹은 비제도권 투자자(Informal investor, Private company investor)라고도 표현한다.

#### ▶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로 사무실은 작아지고 집이 곧 사무실화 하는 요즈음의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현대의 재택근무형 업무형태를 말하기도 하고 개인이 자기의 집 또는 작은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이용해 운영하는 소규모 아이디어 사업체를 뜻하기도 한다.

편집자주

2000년 한국사회.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엔(N) 세대' 아이들에 대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상업자본에 의해 몇 해를 주기로 규정되는 '무스무스 세대'라는 틀은 압축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변한 한국사회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를 기존 세대와 구분 지어 잘 보여주고 있다.

말게는 60년대 4.19 민주항쟁을 경험한 4.19세대와 70년대의 통기타 세대로 규정지어지는 '구세대'에서 '30대이며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대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 386세대에 뒤이어, 신세대와 X세대, Y세대를 거쳐 지금의 N세대까지 여러 개의 세대로 구분 지어졌다. 특히,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의 N세대의 생활양식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N세대의 특징으로 △자유분방하고 자기표현에 솔직하다 △개성이 강하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소비비 미덕으로 여기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는 것 등을 거론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이러한 점을 부추기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업들이다. 그러나 이웃과 공동체에 무관심하고, 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물개성화 되어있고, 사회적으로는 책임감이 없으며 버릇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지금의 N세대들은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다. 따라서 다가 올 우리사회의 성격을 전망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부 언론이나 상업자본이 규정해 놓은 세대구분의 틀을 깨고, 주체적으로 'N세대'를 조명해 보아야 한다. 이에 본사에서는 본교 사회학 전공과 목인 '사회학의 역사' 수강생들과 함께 'N세대가 바라보는 N세대'에 대해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장충동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주요토론자**  
이남주(사회3), 김금엽(사회3), 현혜원(사회3), 정혜진(사회4), 유형우(철학3), 박노철(수학4)



2000년 한국사회.우리는 N세대?

'세대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남주(사회3, 95학번) : 우연히 태진아 콘서트장에 간 적이 있었다. 방송을 통해 스타에게 열광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은 기성세대들이 이해 할 수 없는 세대차이로 규정되어 왔으나, 태진아를 가까이 보기 위해 달려드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은 요즘 아이들과 막상막하였다. 이와 같이 몇가지 성향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서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을 조금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박노철(수학4, 93학번) : 나 스스로 생물학적으로는 'N세대'에 속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N세대는 이렇다'라고 언론이나 상업자본에서 특징을 규정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규정된 특성을 띠며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시인' 취급을 당하는 등 상업적 세대규정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

△ 김금엽 (사회3, 98학번) : N세대의 어떤 점이 싫다고 해서 '난 빠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N세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N세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N세대에게 컴퓨터를 사준 사람, DDR 게임기를 사준 사람은 우리 아버지·어머니다.

어떤 세대가 규정지어지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일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공부해 본적이 한번도 없고, 학교에서 주어진 대로만 공부해 왔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탈'이라고 배운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방구는 전자 오락기가 대부분이었으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답답한 교육현실은 우리에게 해방구를 찾게끔 했다. 따라서 세대를 규정하는 것을 단순히 상업 자본이라고 보기보다, N세대가 어떠한 사회구조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학생활과 N세대

학점, 취직 등 개인에 국한된 고민 공동체와 사회로 고민의 범위를 넓히지 못한다.

△ 박노철 : 요즘 N세대 아이들은 다소 이웃과 사회에 무관심하고 별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학점과 취직 등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치열하게 하는 것 같다. 개인에 한정된 고민이 전체화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고민을 통해 사회 문제 등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다.

이와 비교해 80년대, 지금의 386세대들이 가졌던 자기 삶의 정체성은 전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먼저 갖고 있었다. 자신의 삶의 토대가 되는 사회의 모순들을 고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N세대들이 자포자기 한 것인지, 현실적 안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국이나 민족보다는 자신의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박노철(수학4)

△ 유형우(철학3, 94학번) :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보고 X세대라고 했었고, 군대를 다녀와 보니 N세대로 바뀌어 있었다. 세대 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가 변한 것이다. 공동체 생활과 전공공부는 온데 간데 없고 '컴퓨터와 영어'가 가장 지배적인 가치가 되었으며, 최근 신입생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과거에는 자기 전공 공부만 충실하게 해도 사회진출이 보장되었다. 내가 철학을 전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철학을 공부해서 취직하는 것은 힘들다. 사회에

# 세대? 나를 N세대로

서 요구하는 영어와 컴퓨터 등에 신경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경향을 두고 N세대를 긍정·부정 할 필요는 없다.

△ 정혜진(사회4, 97학번) : 요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를 거쳐 힘들게 대학에 왔지만, 학력주의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비롯한 사회진출의 어려움으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산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아에 대해 인식하고 깊게 고민할 시간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금의 N세대들이 주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나 또한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차라리 몇 십년 전에 태어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물론 시대맞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나름대로 바꾸어 갈 여유도 주어지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 누르고 있어 혼란스럽고 답답하다.

N세대의 특징들

개인화

△ 정혜진 : N세대의 특징이라고 구분 지어지는 개인화, 정치적인 무관심,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소비를 즐기는 것은 결코 N세대들만의 특징이 아니다. 이 시대 전체의 특징이다. 다만 젊은 나이 때의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이다.

△ 박노철 : 지난번 황석영씨가 강연을 통해 "기존의 권력은 거리에서 나왔으나 앞으로는 연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는 개별화되어 있고 병정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가진 요즘 사람들로 사회변혁이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 주체자로서 분화되고 안정된 세대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개인 개인을 작게 엮어 연대하는 방법을 이야기 한 것 같다. 황석영씨는 개인 개인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만 쌓아가고 있는 벽을 깨고 한 발만이라도 뛰쳐나가 다른 단체와 손을 잡지 않으면 N세대들은 완전히 파편화 되어버린다는 우려를 한 것 같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그마한 연대의 손이라도 잡으라고 말한 것 같다. 개인적인 자유는 인정하되 자그마한 손을 뻗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고민이 사회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현혜원(사회3, 97학번) : N세대들은 자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른들을 보면 자신의 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들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한다. 돈이나 권력을 얻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굉장히 열심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두고 개인화 된다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며,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데모를 많이 했

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문턱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4.13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이러한 연유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싫어 투표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성이 강하다?

'강한 개성'과 '자유 분방'의 이면에 깔린 지배적인 가치는?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인가 개성의 추구인가

△ 박노철 : 요즘 머리에 물들이는 것은 일상화되었고, 머리색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80년대에는 우리문화 운동의 발현으로 한복을 입고 다니는 선배들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자는 '내용'에 입각한 개성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내용'에 입각한 개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유행을 쫓아 물개성화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행은 서양에서 내용은 없이 겉 핥기만 해온 것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나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패션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유형우 : 요즘에는 50%이상의 N세대가 머리를 물들이고 있으나 이는 처음에 머리에 물들인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며, 안하고 있는 사람은 좋아 보이지 않던가, 용기가 없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개성의 표현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개성표현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자기 표현 방법이 개발되어 진짜 개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유형우(철학3)

△ 박노철 : 개성표현이라고 일축하기 보다는 N세대들이 머리 염색으로 정말로 개성을 표현하는 것인지, 맹목적인 서양추종인지 아니면 서양콤플렉스의 발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원래 검은머리인데 노랑고 빨간 머리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배어있는 서구 콤플렉스일 수도 있다.

△ 유형우 : 나는 서양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영화 속 주인공의 금발이 멋지게 보여서 할

# 규정짓지 마라

수도 있는 것처럼 서양 콤플렉스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맹목적인 서양추구로 보기보다는 자기 삶의 표현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염색하는 것 자체가 자기표현의 방식이다.

△ 현혜원 : 서양인들은 생태적으로 노랑과 빨간 머리카락을 갖고 있지만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동양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예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다. 길을 가다가 핫도그가 그냥 먹고싶은 것처럼, '그냥'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이지 서양에 대한 콤플렉스는 아니다.

## 가벼움

### 왜냐고 묻거든? "그냥" '그냥'의 이면에는 엄청난 무엇이 있는가

△ 김금영 : 그러나 방금 말한 '그냥'의 이면에는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밴 서구의 가치관과 맹목적 추종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N세대가 규정하는 이상형의 대부분은 서구의 배우나 모델들이다. 다시 말해, 서구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 보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예쁘다고 규정지어졌기 때문에 서구의 기준이 N세대의 내면적인 규정으로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N세대들의 서구지향적 성격을 일부 언론에서는 많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서 N세대들이 서구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서구 중심적인 미의 기준을 갖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아이들보다는 기성세대들이 더 서구 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압축 근대화 과정을 통해 얻은 서구 중심적인 가치관과 유교적인 가치관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서구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머리를 함부로 물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의 서구지향성이 더 강하다는 것은 가깝게는 학부제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학부제는 미국의 그것을 본 따온 것이다. 미국의 학부제가 우리의 대학 현실과 결맞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프랑스를 보아라, 영국을 보아라, 미국을 보라고 하며 제1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절대적인 가치로 제시하며 서구 콤플렉스를 가져다 준 것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기성세대만을 탓할 생각도 없고, 사회구조의 문제로만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봉준을 존경하지 못하고 맑스를 존경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 솔직한 것인가, 버릇없는 것인가

△ 정혜진 : 이전 세대들과 N세대들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예전에는 술을 먹다가 집에 가고 싶어도 선배들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고 꺾였었다면, 지금은 말은 하는 것이고 얼마만큼 행동과 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N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현혜원(사회3)

△ 이남주 : 00학년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며 자기 P.R.에 능숙하다.

△ 정혜진 :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같은 관심사로 만난 동호회에서 채팅을 하는데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건 말건 계속 친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한다.

### N세대의 의·식·주

△ 현혜원 : 요즘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예전에는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인데, 요즘 아이들을 갖고 싶은 옷을 사고 싶어서, 갖고 싶은 신발을 사고 싶어서, 돈을 팍팍 쓰기 위해서 집이 가난하지도 않은데 아르바이트를 한다. 나는 N세대의 가장 큰 특징을 자기애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归结된다.

△ 유흥우 : N세대 여자 애들은 옷 입는 것을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여긴다. 나는 힙합이다 또는 세미힙합이라고 자신의 스타일을 규정해서 어느 패거리 안에 자신을 포함하려고 한다.

△ 정혜진 : 나는 패거리에 속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결정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아이들은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동대문이건 메이커건 가리지 않고 자신이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산다. N세대의 머리 속에는 자기를 '어떤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 박노철 : 예전에는 청바지가 찢어지면 참패해서 입지 못하는데 요즘은 내가 입다가 떨어져도 그걸 참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찢어졌어도 버릴 필요가 없다.

△ 현혜원 : 강남과 강북의 스타일이 다르다. 강북은 복고패션이 유행했었고 강남은 힙합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강북 애들이 강남 콤플렉스가 있어 최근에는 강남 패션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 친구는 복고

풍 옷을 입고 강남에 갔다가 당황한 적이 있다고 한다.

△ 박노철 : 옷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강남패션과 강북패션을 강남역과 압구정, 대학로와 명동으로 대표되는 일부분의 지역패션을 너무 쉽게 일반화 시키고 있는 것 같다.

### 식

△ 박노철 :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러 가도 선배들은 상륙원 식당 2층에서 밥을 먹고 후배들은 1층에서 분식이나 양식을 먹는다.

△ 유흥우 : 우리는 싸고 배부른 데를 찾아가지만 N세대 아이들은 맛집을 찾아다닌다. 우리는 밥을 때우는 것이고 N세대들은 밥을 즐기는 것이다.

△ 현혜원 : 먹는 것은 돈 문제인 것도 같고 성별차이인 것도 같다. 돈만 많으면야...

### 주

△ 현혜원 : 우리집은 누구도 함부로 남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동공간은 거실뿐이고, 자기 공간에 대한 애착이 있다.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 N세대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흠여져서 사는 것이다. 학교 주변 하숙집이 원룸형으로 바뀌는 것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학생들이 비싸더라도 편리한 자기공간을 찾기 때문이다.

△ 정혜진 : 요즘 애들은 부모와 살다가 떨어져 나오는데 아파트 안에서 내 방 문닫고 있는 것도 구속이라는 생각이 들면 학교 근처의 전세 또는 원룸으로 나와 산다. 자취를 하게되면 개인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이 쌓여간다. 방 자체가 옛날 단독주택 구조에서 다락방의 역할을 한다. 내 친구는 자기가 돈을 버는데 부모만 살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산다.

### N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

△ 박노철 : N세대는 개인적인 고민을 사회적 차원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적으로 파편화된 미래를 예고하나 작은 연대를 통해 문제의식의 범위를 넓힌다면 그들에게 미래는 열려있지 않을까.

△ 김금영 : 구조화, 획일화된 문화에 익숙한 기성세대에게 N세대들은 '제멋대로'인 아이들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기성세대가 깨지 못하는 틀을 바꿔나가는 용감한 세대일지도 모른다.

△ 현혜원 : 개인적인 자기물들을 통해 자기애를 표현하는 N세대들의 모습이 그들 미래를 파편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파편화 이전에 순수한 자기애를 통해 좀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낙관론을 주장해 보고 싶다.

△ 유흥우 : 자기 개성이 정말 뚜렷하다. 이러한 점이 N세대의 물개성화라고 보이지만, 이러한 것은 과도기적 모습이라 여겨지고 이 시기가 지난다면 '철학', 즉 주체가 있는 개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록·정리 = 김진아 기자  
ring@dgu.ac.kr

본사 창간50주년 기념 황석영 선생 초청 강연회  
'아들을 위하여 - N세대에게 고함'

# “N세대에게 미래가 없다?”

## 주체적 사고와 사회도전 정신 절실 미시적 연대로 파편화 극복해야

초청연사인 황석영씨는 1943년 민주 장춘에서 태어나 48년까지의가인 평양에서 살다가 영등포에 정착하였다.

경북고등학교 재학 중 '사상계'에 '임석부근'으로 등단하였고 2학년 때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4.19를 겪으며 세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식민지 시대와 분단시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황석영 씨는 해병대에 지원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시체를 처리하는 작업등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 때 느꼈던 경험들은 '낙타눈깔' 등의 작품에 반영되어 그의 작품 세계에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와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예수의 사랑은 전쟁의 상흔을 견어내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보다 넓은 부처님의 가슴에 안기고자 불교 철학과로 옮겼으나, 불교 재학 중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탈'이 당선되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인해 졸업은 무한정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마치 운명처럼 격변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황석영 씨는 글쓰는 것만으로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여러 사회 운동의 현장에 뛰어들었다. '선 건설 후 분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군사정권시대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이에 그는 사회와 노동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작가가 해야 할 임임을 인식하고 구로 공단에 위장취업을 하였지만 경찰의 검거 열풍으로 마산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에 탈고한 그의 소설 '삼포 가는 길'을 통해 역시 그가 현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두되었는데 그 하나는 '전위론'으로 대중을 이끌고 나아가자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과 함께론'으로 대중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계몽시키자는 입장이었다. 황석영 씨는 대중의 삶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이 존향도 현상이 가장 심하던 전라도 해남에서 농민들과의 생활을 시작, 농촌에 살면서 농민들을 계몽시키는데 주력하였다.

1980년 '대중운동'의 한 부문으로 '문화운동'을 조직하던 중 5.18광주사태가 일어나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위한 행진곡'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탈고하였다. 1989년 '북한 콤플렉스'를 벗어나고 '사상적 백치'를 면해보고자 방북하였고 베를린과 뉴욕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국제 정세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검거될 것을 각오하고, 1993년 귀국하여 1988년까지 사상범 장기수로 공주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하였다.

그는 이렇게 치열했던 자신의 삶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N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그들은 시대가 만들어 놓은 N세대라는 틀에 맞추어 살아갈 뿐 그들만의 창조성은 결여되어 있다. 핸드폰, MP3, 스타크래프트로 대변되어지는 N세대문화는 흘러가는 하나의 시대적 조류에 불과하다. 자신이 겪었던 '청년문화'는 기존의 사회 체제에 대한 변혁을 피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의 N세대는 자신의 이익이 결부되어있지 않은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따라서 N세대에게 가장 요청되는 점은 주체적 사고와 사회에 대한 도전정신이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N세대는 지난 세기의 이념적 명제들을 일상 생활속에서 풀어나 새로운 문화적 담론으로 제시해가며 새로운 '시민세대'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내는 '통일세대'가 될 수 있다. N세대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N세대의 역할을 대단히 기대한다는 뜻이다.

황석영씨는 현재 충남 덕산에서 최근 12년 만에 내놓은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을 탈고하고 판소리 열두 마당의 형식을 빌린 장편소설 '손님'을 집필 중에 있다. 정리=기획부



사진/김현중 기자

# 달하나 천강에

## 불경한 효도



최순열  
국어교육과 교수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일년 내내 억지와 생떼를 쓰던 아이가 이 날만은 짐짓 의젓하게 제 엄마 아빠에게 선물도 하고 예쁘게 감사의 인사말도 한다. 기특하고 가특한 효성이다. 물론 제 부모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지만 어린것들이 이것저것 선물이라도 사주고 오면 어느 어버이인들 기쁘지 않으랴. 또한 자식들은 그런 선물 차례로 어버이 공덕에 보답하는 효도를 했다고 치부하곤 한다.

생각건대, 나는 평생 어머니에게 제대로 호사스럽고 귀한 선물로 효도를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다 커서까지도 그저 늘 어머니에게서 무언가를 떼어서 받아오기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기뻐하셨다. 자식의 선물을 받기보다는 자식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베풀지 못해 안달하는 그 즐거움을 나는 어머니를 보내고, 또 내가 자식을 거느리면서 이제서야 알 것 같다.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로 효도하려 하지 말라. 어버이께 선물드릴 생각 말고 어버이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게 받아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아야 하리라. 어버이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면 마냥 행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버이께 살과 뼈와 영혼을 얻어 탄생한 날 이래, 시시때때로 어버이는 주고 자식은 받기 마련이다. 한평생 동안 자식이 좋아한다면, 이웃이야 상관없이 청국장을 끓여내고, 한 발짝에 국수를 말아내고 미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니시던가.

철없던 망나니 젊은 시절 밤 지새며 글줄을 쓴답시고 궁경거리며 못되게 출담배를 피우다 담배가 똥이 난걸 보시고 새벽같이 구멍가게에 나가서 담배를 사오셔서 내 방에 들이신 나의 어머니, 그리곤 대견스레 바라보시던 그 모습, 나는 참 현심하고 발칙한 짓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셈이다. 그런 불경한 효도를 이때껏 누렸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얼마전 까지 나잇살 먹은 놈이 술을 주책없이 먹곤 속이 아파서 찔찔 때는 아침, 축은하다는 얼굴로 해장국을 끓여주시던 허리 곱은 어머니가 참으로 그림구나. 알겠도다, 풍수지탄(風樹之嘆)의 아픔이 무엇인지.

## 기획시리즈

-북한문화 바로 알기

북한의 문화는 우리의 어떻게 다른가. 남과 북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사 문화부는 '북한문화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총 3회의 기획을 실행한다.

1. 남·북한 대문화 비교
2. 전반적인 남·북한 문화현상 진단
3. 남·북한 문화교류 사례

첫 회, 북한의 젊은 문화를 우리의 대문화와 비교한다. 귀순자의 시각에서 본 남한의 대문화와 북한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문화를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북한문화 바로 알기

# 평양 대학생, 테크노 배우다

### 남·북한 상반된 문화풍토 ... 강압적인 북한문화를 벗어나 자유를 느낀다

귀순하기 전 남한노래인 '아! 대한민국'을 부르며 신세대인듯 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후에도 남한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그것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호칭되는 노래를 불렀다는 어마어마한 죄로 보위부에 끌려가 매를 맞았지만 말이다.

그때도 신났다. 당시만 해도 내가 다니던 평양 연극영화 대학 학생들 속에는 남조선 가요 열풍이 대단했다. 나는 늘 일본에서 건너온 복숭아고 자녀를 친구로 둔 덕분에 최신가요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 노래들을 배웠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곤 했다. 인기가 컸던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다.

귀순 후, 나는 서슴지 않고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에 입학했다. 그리고 귀순 선배들이 말하던 문화적 갈등을 몸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다. 한가닥 희망이 있었다면 나는 북한에서 소위 신세대였다는 것이다. 왜냐면 남조선 노래를 누구보다 잘 불렀으니 말이다.

대학 동기들과 처음으로 노래방에 간 날 (물론 그것도 내가 가지고 갔지만) 나는 기다리더라도 한 듯 멋지게 노래를 불렀다. 북한의 여대생들도 넘어가 버렸던 그 노래, '아! 대한민국' 나의 예상대로 대학 동기들의 함성이 터졌다. 이어지는 앵콜! 연이어 나는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를 불렀다. 처음보다 박수와 함성은 작았지만 역시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내가 아무리 노래방을 가지고 해도 동기들은 머리를 찌른다. 무슨일일까?! 한참 후에야 내가 그들의 표현대로 착각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당구장에 가도 매일 자장면 값은 내가 지불해야 했다. 내가 언제 당구를 쳐 봤으며 내가 언제 램을 해보았으랴. 서서히 그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귀순 선배들이 말하던 문화적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대학에선 소위 자율적인 학습보다 강압적인 학습방법으

로 공부를 시킨다. 예를 들어 내가 다니던 평양 연극영화 대학에선 우리의 리포트에 해당하는 숙제를 1주일에 5건 이상씩 준다. '주체 영화 예술론에 대한 고찰', '연출가의 창의적인 조건', '주체 철학론과 예술론의 결합' 등 시나리오 1편, 영화평 1편, 연출대본(콘티) 1편, 소설(혹은 시나 수필 등) 작 품평 1편 등등 1주일 내내 리포트만 해도 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음주가 무는 물론 연애도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학칙을 어기다 보면 결국은 퇴학 아니면 사상 투쟁이었다. 내가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체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대학생은 말 그대로 지도세력으로서의 능력과 이론을 겸비하기 위해 스파르타식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게 그 사회의 풍토라는 것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달랐다. 전공과목에 결석해도 우리의 믿음직한 '대출'이 있지 않은가. 북한 같으면 바로 퇴학이다. 리포트를 남의 것을 베껴 제출해도 당당하게 학점이 인정되는 아! 우리 대한민국.

학문의 의미는 사실을 위한 사실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한의 대학생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비록 많지 않은 나이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사회를 살아보는 대학생으로서 나는 비로소 요즘에야 학문의 의미를 새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지금에야 이정현의 '비취'를 알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그랬다 "인간은 태어날 때 조국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식 대학생이 되어간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지면을 빌어 짜증나는 조건을 한마디 하려고 한다. 남한 대학생 여러분, 우리 늘 감사하면서 삽시다. 정성산 연극영상학부 휴학 중·귀순작가



## 책소개

### 안과밖 제 8호

영미문학의 연구와 성과교류 및 대중적 확산을 통해 우리의 문화·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펴낸 반년간지.

고전읽기에서 E. M.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을 재조명하며, 쟁점에서는 '강의실 안의 문학작품'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또 스위프트의 고전 '걸리버 여행기'의 번역을 검토하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지구화시대에 살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흐른다.

영미문학연구회 발행 / 창작과 비평사, 정가 1만원.

### 갈릴레오 이전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가



망원경의 발명과 더불어 새로운 관측 역사가 시작되는 갈릴레오 이전(17세기)까지의 우주론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 그동안 국내에 소개가 드물었던 이슬람·인도·중국·티베트 등의 우주관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단순한 천문학적 탐구가 아닌 인류 정신사를 접할 수 있다. 신화의 복원으로서의 빅뱅이론, 천구설 등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에디트 위제·프랑수아 베르나르 위제 지음, 문신원 옮김 / 이플리오, 정가 1만 5천원.

### 영어안내 114



우리 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미국영어발음(AHD)의 소개를 통해 발음교정을 유도하며, 영어회화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영어시험에서의 고득점 획득 기술 등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필자가 미국 유학과 영어 강의를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와 영어를 완성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재영 지음 / YBM 시사영어사, 정가 7천 5백원.

### 내러티브(Narrative) 창간호

대중소사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의 성격과 구조를 문학, 영화, 언어학 등의 분야와 접목시켜 이해한다. '서사물의 화자'라는 주제로 변지연, 서정남 교수 등의 논문을 기획특집에 상세히 다루며, S. 체트먼과 M. 발의 논문을 번역해서 실고 있다. 각 논문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로 둘러싸인 세계'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돋보인다. 본고 한용환(국어교육) 교수가 상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서사연구회 발행 / 개마고원, 정가 1만원.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이미 '거지성자'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잘 알려진 독일인 수행자 페터 노이아르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지난해 11월부터의 언론과의 인터뷰, 독자와의 만남 등을 통한 한국방문기를 다루고 있다.

12월 중순부터 송광사의 보성 방장 스님, 실상사 도법 스님, 삼진강 지기 김용택 시인, 지리산의 수행자들을 만나 진정한 무소유 수행과 생태주의적 사상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전재성 지음/선재 펴냄/정가 7천 5백원



# 매체비평

-영화편-

‘섹스, 애나벨 청 스토리’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남성 중심적인 성구조를 테러한다”



본사지판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큐멘타리를 제작한 애나벨 청.

애나벨 청 ... 싱가포르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법대, USC 인류학과를 거쳐 251명의 남자와 사상최대의 갱쟁(gang-bang : 한 여자와 여러명의 남자가 돌아가며 섹스를 벌이는 것)이벤트를 벌이는 포르노 배우가 된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애나벨 청의 변신은 놀랍도록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다.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카피판 보고 싶 불리 그녀를 판단하거나 그녀의 이야기(영화)를 상상한다면 실망하거나 광분(?)하게 될 것이다. 애나벨 청 스토리는 섹스와 포르노 그리피로 포장된 애나벨이 아닌 성에 관한 그녀의 주장과 실천을 진지하게 따라가는 다큐멘타리이기 때문이다. 갱쟁 이벤트로부터 2년동안 그녀 주위를 끈덕지게 맴도는 카메라는 그녀의 출생에서부터 직접적인 사생활까지 집요하게 추적한다. 어릴때부터 난잡한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다. 미술감의를 듣기 위해 누드 모델 했다. 마약을 즐기고 양성에 취향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거침없이 담아내는 이 다큐멘타리는 당당하고 도발적인 애나벨의 말투만큼이나 매혹적이다.

하지만 그녀가 추구하는 ‘성정치화’에 대한 동기와 목표가 분명치 않아 갱쟁과 포르노 배우로서의 행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여성학 강의를 듣다가 학문적 한계와 남성중심적인 편견에 화가나서 포르노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애나벨의 대답은 ‘너희들 뭐가 그리 잘났어!’라며 남자들을 향해 조소를 흘리는 포르노 배우 ‘애나벨 청’을 설명하기엔 빈약하고 실망스럽다.

애나벨은 인터뷰에서 갱쟁 이벤트를 통해서 성차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었으며, 동양적인 시각에서의 ‘처녀 대 처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남자를 상대하는 갱쟁 이벤트에서 그녀는 마라톤처럼 괴롭고 힘겨워보였다. 물론 많은 사람들(메미니즘을 옹호하는, 혹은 평론가들)이 그녀의 열거적인 행위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과연, 반드시 육체를 희생시켜야만 하는지 의문스럽다. 그녀 역시 다른 방법으로 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갱쟁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성이 본능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이 뒤따르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이면 애나벨의 갱쟁 이벤트가 성의 상품화(갱쟁 이벤트 비디오는 4만여개정도 팔려나갔다) 성적 폭력을 비껴갈 수 있는냐는 문제이다. 본능을 억압하는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하지만 애나벨의 갱쟁 이벤트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귀한 ‘성’을 단순한 본능으로 치부해 버리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느껴졌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장면 251그릇을 10시간 동안 먹는 이벤트를 벌이면 식욕 역시 정치화 될 수 있을까?)

문화부

# 시리즈 속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풍자·회화·언어유희 통해 사회문제를 풍자한다

### 왕따의 다른 이름, 사·오·정

TV만화시리즈 ‘날아라 슈퍼보드’에서 사오정이 귀가 멀어 말을 못 알아듣는 캐릭터로 나왔던 것을 시작으로 사오정이란 단어는 어느 사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들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98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사오정시리즈는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그 당시 사회의 냉소와 불신, ‘왕따’ 현상을 풍자해 왔다.

수업 시간, 사오정이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한다.

“선생님!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이게 안보여? 너 눈이 멀어냐?”

“제 눈은 틀 인데요.”

“그게, 아니고 너 눈이 얼마나?”

“선생님!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이처럼 바쁜 일상으로 인한 가족간의 대화단절과 부모자식간의 의사소통 결여, ‘왕따’ 현상으로 인한 초·중·고교생의 자퇴와 자살, 대학가와 직장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불신 등이 사오정시리즈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앞선 문제점과 더불어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보편화로 간접적 대면문화가 널리 양산되어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소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알 수 없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PC통신 언어 등이 신세대와 기성세대간의 대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막연히 웃고 넘겼던 농담과 유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사회상과 현실을 되짚어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의 대화에서만 아니라 영화, 방송매체에서조차 언어를 이용한 웃음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가 바뀌어 갈수록 사람들은 대상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려 하기보다는 재미난 말투의 구사를 이용한 회화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뭔가 특이한 발상의 언어를 통해 재미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표출시키려는 대상을 순화시킨다는 의도도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형남시리즈의 등장에서도 언어구사를 통해 대상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보통사람들이 무겁게 혹은 어렵게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를 언어를 통해 이미지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유희의 경우 거칠고 폭력적인 영화의 배경이더라도 배우가 구사하는 언어는 알고있던 세계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주며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회화한다.

이렇듯 방송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유희는 우리가 지나왔던 고정된 이미지를 깨뜨리는 활동이며 삼행시의 유행 또한 진지함에 대한 거부를 보여준다. 언어는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평범한 일상용어가 될 수 있으며 대상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부여하는 미술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 발상의 전환 VS. 언어 파괴

가슴 떨리게 하는 첫문장을 보고 조심스레 말줄임표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지 않는 결국 허탈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이야기들. 이처럼 휴대폰을 이용한 세대들의 문자메세지 통신은 어법과 문법을 무시한채 ‘언어파괴’의 심각성을 위협수위로 올려놓았다.

지난 90년대 초 네티즌을 중심으로 일어난 언어파괴는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화된 일이다. 긴말을 줄여서 표현하거나 새로운 신조어를 등장시켜 현실언어와 낯설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언어문화에서 기성세대와의 차별성을 꾀한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이같은 언어 사용은 우리말의 색다른 기능을 개발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간의 의사소통 장애를 불러일으킨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날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떠올랐고, 여기에 일정한 단어를 선택해 말장난으로 이어붙이는 언어상의 유희는 오늘날 또다른 언어파괴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날로 깊어지는 언어파괴 현상을 두고 이임수(국문학) 교수는 “우리말의 조어력 한계성을 볼 때 새로운 실험적 도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단지 유희를 목적으로 언어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나라의 언어는 그나라의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질서는 규칙을 하나 틀씩 벗어 던지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언어파괴’의 별거숭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실용성 추구나 유희의 전유물이나 하는 논쟁에 앞서 과연 무엇이 언어생활에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자유소식

### 학교안에서

#### 소강당 영화제

서울캠 학생복지 위원회에서는 5월 무료 영화제를 실시한다. 이번 영화제는 학내 문화생활 향상과 일상적 문화공간 확보를 취지로 매달 열리고 있다.

5월 12일	행복한 장의사
5월 19일	플란타스의 개
5월 26일	산책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 민화월 중강당 상영회

서울캠 민화 동아리 ‘민화월’이 준비한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회.

날 짜	시 간	제 목
5월 9일	10:00~12:00	FiveStarStories+ 엔젤전설
	12:00~2:00	바람의 검심 (추억편)
	2:20~4:00	소녀혁명 우테나 (극장판)
	4:30~6:00	원령공주
5월 10일	10:00-12:00	마크로스 PLUS
	12:00-2:00	그 남자 그 여자
	2:20-4:00	슬레이어스고저스 +Special
	4:30-6:00	사이버보틀러 SIN

본관 중강당에서. 관람료 1천원.

### 학교밖에서

#### 협종망치(舊從罔治)

뒤틀리고 억압적인 지난 역사의 한켠에서 온몸으로 수난을 겪은 한 여인을 만나다.

여성을 성의 상품으로 평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성폭력, 성고문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연극. 1988년 4월 ‘부천시 성고문사건’을 소재로 한 희곡작가 이현화의 최신작.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4시. 7시30분(첫날, 월요일 낮공연 없음).

대학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문의 732-4343

### 제1회 사이버 번역가 선발대회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경없는 세계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구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전국 네티즌들이 보다 쉽게 번역이라는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대회가 열린다. 번역 분야와 컴퓨터 사업을 접목시켜 번역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인터넷 시험과 자격 시험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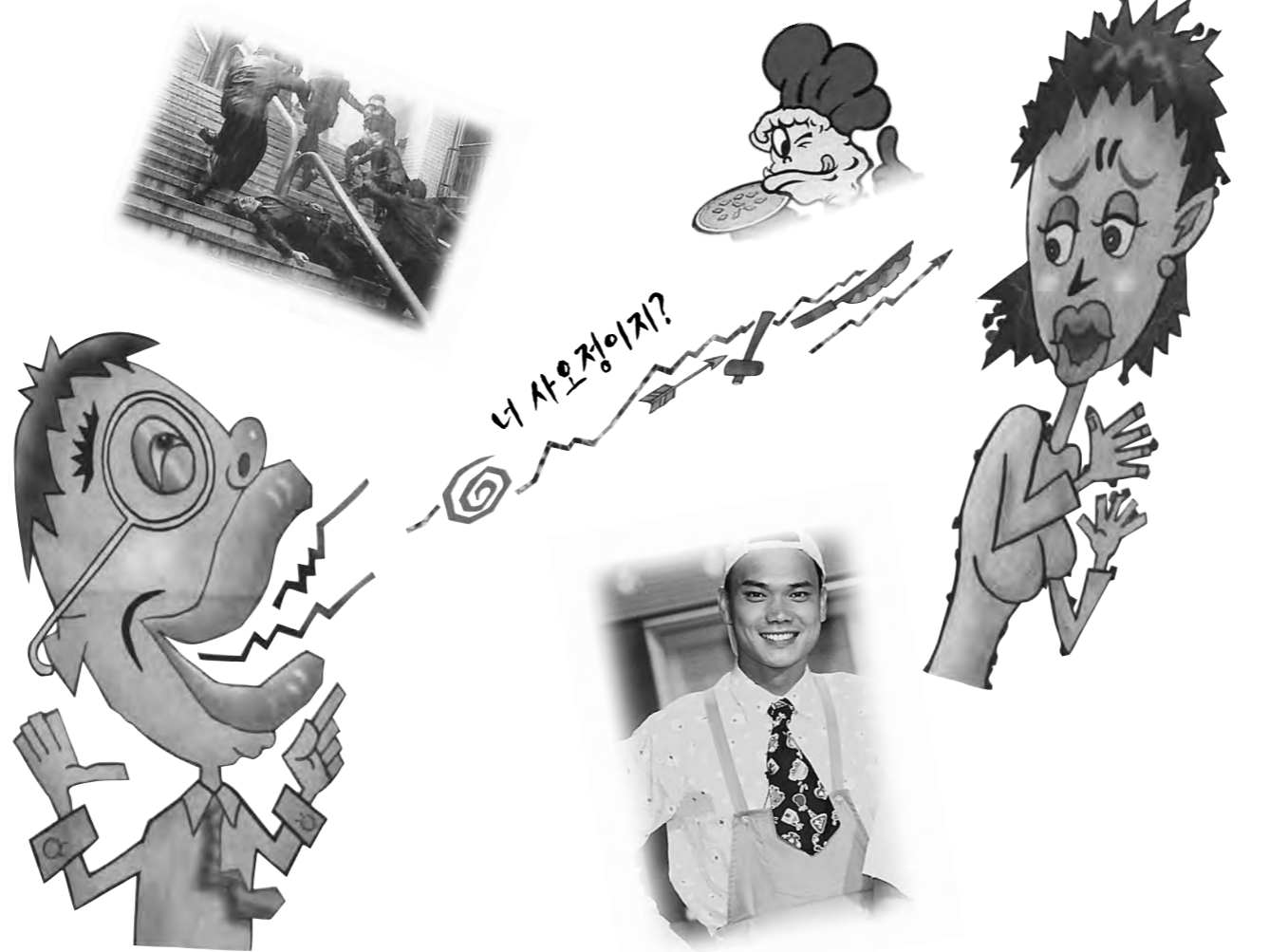
원서교부·접수: www.kcta.net과 전국 교부처, 응시료 3만원.

시험일시: 오는 23일까지 수시 접수로 시험진행. 6월 26일 합격자 발표.

전형: 영·일·중국어를 한국어역(100% 주관식) 문의 739-1545

### 진지한 건 싫다

각종 유머가 난무하고 있는 요즘 일상



## 사회를 향한 배타한 시선 ‘유머 시리즈’

### 소외현상

#### ▲ 사오정 모자

사오정 엄마랑 사오정 아들이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정아 지금 몇시니??

사오정: 응, MBC 보기 있어.

엄마: 아이고... 벌써 그래 됐니??

#### ▲ 사오정의 대답

세리아: 오늘은 광복절이다. 태극기 달았나?

사오정: 복날에 태극기도 다는구나. 난 개나 잡아 먹는 줄 알았지.

세리아: 그 복날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다.

사오정: 우리나라가 해방대를 세운 날이라고? 오... 정말?

세리아: 그게 아니라 일본에게서 벗어난 날이다.

사오정: 일본옷을 벗은 날이라고? 그럼 전부 알몸?

세리아: 말도 안되는 소리마라. 제2의 건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오정: 제2의 건봉? 새로나온 건봉인가? 어디서 팔지?

세리아: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한 거 말이다.

사오정: 대통령이 건봉을 판다고?

#### 대상의 회화화

#### ▲ 어느 조폭이야기

어느 한 지방의 조직 세력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

귀두파의 조직 보스는 등뒤의 큰 용문신을 한 깎두기 머리의 늙은이 일곱

이었고 물가리파의 보스는 보잘것없는 허름한 인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화가 생겨 세력다툼을 하고난 뒤 귀두파의 보스는 등이 찢히는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래 팔마니들은 “형님, 형님”하며 연신 불러 제쳤고, 어느 한 간부급 조폭이 울먹이며 의사의 면담을 잡고 “우리 형님 못살려대면 너도 죽는다!”하고 엄포를 놓았다.

긴 수술이 시작되었다. 팔마니들은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던 순간 의사가 문을 박차고 나왔고 드리도리 고개를 저었다. 한 조폭이 대뜸 면담을 잡고 말했다. “서.. 설마 죽은건 아니겠지?”하고 묻자 의사가 “죽진 않았소이다.” 그러자 조폭이 “그럼 등이 찢

는데 왜이렇게 오래걸러?”하면서 면담을 잡고 주먹을 들자 의사가 하는 말 “그럼 너도 등에 용문신 무늬 맞춰봐”

#### 언어유희

#### ▲ 문자 메세지 시리즈

눈에넣어도아프지않은그대를통해새로운세상을보았죠그대의이름은.....

.....콘택트렌즈

보고싶어너의팬티.....엄컴퓨터

너남자랑했지.....내내자랑했다

너의사랑.....

.....애기해난간호사애기할게

#### ▲ 낙엽 2행시

낙... 낙엽이 말했습니다.

엽... 말하며(김영철 버전)

## 메아리

### 근본문제

#### ▲ 모든 병에는 그 근원이 있어 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 ‘허준’을 열심히 시청하다 보면 시술에 앞서 허준이 병자의 상태를 살피고 병의 원인부터 밝힌 뒤 시술과 처방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정성을 다해 환자를 살피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그의 역할은 얼음보다도 차가운 스승 유의대를 감동시키기

충분했다.

#### ▲ 지금 허준이 살던 시대에서 몇 백년이 흘러 아픈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7천만의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동안이나 ‘분단과 이산’이라는 병을 앓고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명의도 이들의 아픔에 허준처럼 진심으로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오랜 세월동안

상처가 곪아터져 이제는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마저 품게 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비로소 ‘명약’을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남북 정상 회담이다. 남북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있다.

#### ▲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한총련과 법민련 등 통일운동 단체의 이적규정을 철회하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꿈쩍도 할 것 같지 않던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를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상처투성이 환자를 눈앞에 두고 서로 네가 패였으니가 책임지라는 식에 지나지 않는다.

#### ▲ 50년만의 양측 정상과의 박찬 만남이

다. 몸을 사리지 말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병을 치유하는 마음으로 인내와 지극 정성을 다해 마음으로 치료해야 한다. 서로에게 알파한 상호주의를 내세우지 말고 허준과 같은 인내와 희생으로 근본문제부터 해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김진아 편집장  
ring@dgu.ac.kr

소나기

"내가 만약 김대중대통령이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다"



△시험기간에 김정일 안 만나는 게 맞네~ 하지만 만나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겠다.  
△국방위원장님 물과 기름은 서로 합쳐질 수 없지만 계면활성제를 이용하면 합쳐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계면 활성제라 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곱하겠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도 괜찮고...

△에~ 기쁘조 좀 나눠조  
△에~ 북한에도 등록금 인상합니까?  
△린다 김을 조심하시오  
△우리 조국 통일 합세다.  
△남과 북  
북과 남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상당한 이야기를 합시다. 회의를 잘해서 통일을 이뤘으면 합니다.  
담화문을 발표해 조국 통일이 이루어 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며...

△한번 바뀌어 통치해 볼래?  
△(정상회담이고 뭐고) 이제 사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지경을 보여줬나?  
△에~ 그러지 않아요?  
△안녕! 난 대통령이다.  
△이번에는 또 뭐가 필요하십니까?  
△너! 너 정일이야? 나 대중이야. 형그리 정신! 형그리 정신이 있어야돼. 미국? 맞장 때!  
△핵 미사일 잘 쏘겨봐!  
△잠수함 좀 그만보라... 귀찮아...  
△북쪽 동무가 남쪽으로 오는 까닭은? 배가 고파서!  
△자~ 더이상 분단은 이제 그만! ~ 남북한 친구들 우리 이제 통일합시다.  
△아이~ 좋아~~!

TEL : 22603491·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개교기념일
화	제육김치찌개(1300) 생선가스(1300) 새우볶음밥(1300)
수	시골우거지탕(1300) 오징어채볶음(1500) 떡볶이백반(1300)
목	부처님 오신날
금	양지탕(1300) 카레만두(1500) 생이채비빔밥(13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개교기념일
화	육개장(1500) 소고기영양탕(3300) 어묵볶음(1300) 북어양념구이(3300)
수	순두부찌개(1300) 소고기전골(3300) 불고기비빔밥(1500) 야구찜(3500)
목	부처님 오신날
금	꼬치우동백반(1500) 만두전골(3300) 오징어가스(1300) 닭갈비(3300)

(단위: 원)

서울캠 공간배치 유감

이번 학기에 들어와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는 경영대학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야단이 난다. 그 이유는 다음 강의실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다.

지난 학기까지는 동국관 M동 2층에서 경상대학의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진 관계로 이동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았지만, 금년에 들어와 M동 2층이 벤처기업 공간으로 주어지면서 외국어교육원이 사용하던 1층 공간에 경영대학의 교학과와 각과 학생회가 옮긴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휴화관이나 불교대학이 있는 문화예술관으로 옮겨가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다. 즉 경영대학 강의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마다 좁은 통로 양편에는 학생들의 사물함이 자리를 차지하여 교실 통로는 비좁고 내왕하는 인파로 마치 시장바닥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화재발생 같은 비상사태는 공간의 비좁음으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비좁은 공간에서의 캠퍼스 구성원들의 불편과 시간적 낭비는 무원칙적인 공간배치와 시간표 편성에서 대부분 비롯된 것이다.

학교의 공간배치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은 다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공간의 배치와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이들의 동선이 짧도록 이용 시설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공간이 좁다보니 그 동안 무리하게 공간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인정은 되지만, 조금만 공간 배치 원칙에 충실했다더라면 많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한 예로

1996년 동국관으로 옮겼다가 금년 봄에 휴화관으로 옮겨간 외국어 교육원의 경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사례이다. 이 시설은 동국대학교 학생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므로 캠퍼스 중앙에 자리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뿐더러 이 시설과 관련된 영문과교수님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부분 학생회 공간은 동선이 짧은 교학과 부근에 자리잡고 있고, 또한 다수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실은 지하나 고층 아니면 동선이 긴 교학과와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에 배치되어 학생들이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수업에 늦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학기는 목요일에 야간강좌 생산관리가 개설되었는데, 학기초에 배부된 시간표 책자에는 분명히 강의장소가 BSC 2로 되어 있었지만, 어느 경제신문사에서 행하는 외부강좌를 위해 내주는 비람에 영상강의 교실이 아닌 L301로 변경되었다. 그로 인해 한 달이 넘게 영상강의를 하지 못했고, 또한 교실 천장에 새로 설치한 빔 프로젝터를 도난 당하는 바람에 요즈음은 강의 시작 전에 조교가 프로젝터와 컴퓨터를 설치하느라 수업을 제시간에 시작하기 힘든 실정이다.

금년 초 동국관 전면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자동차의 경계를 만들어 질서정연한 주차에 한몫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용 주차장을 현관 가까운 곳에 두지 않고 주차장 중간에 둔 것은 뜻(?)을 모르겠다.

학교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캠퍼스의 모든 시설들은 공간배치원칙과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사용자원칙에 따라 시급히 재배치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순후(경영대학 교수)

메모한장의 미덕을 갖자

중간고사! 시험지의 여백을 상당히 남기고 나오면 발걸음은 으레 도서관으로 향한다. "그래 이제부터야" 양 어금니를 굳게 물면서.

결의에 찬 눈동자로 도서관에 들어서면 공부하기에 앞서 우선 빈자리를 찾으려 두 눈은 더욱 결의에 차게 된다. 물론 시험기간이니까 사람이 많은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종종 풀이놓지도 않은 채 수위아저씨 마냥 책상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방을 보게된다. 일찍 도서관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시험보고, 밥 먹고, 집에 가서 잡자는 시간에도 모두가 사용해야 할 도서관 자리를 독점하는 특권을 누리다.

때로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만을 아는 정치는인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는 이들이 고작 가져가지도 못한 나무의자 하나에 공격한 모습이 보여진다.

얼마 전 도서관 꼭 찬 자리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진 책 옆으로 메모 한 장이 있었다. "5시까지 공부하세요. 시험을 보거든요!" 선뜻 남다른 선의에 "착하시군요. 천사 표 핫브레이크입니다."며 책 사이에 끼워 넣은 적이 있었다.

언제 생각지도 모르는 자리를 남에게 배려해 주기 위해 필요한 때만 자리를 잡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메모 한 장을 남기는 미덕을 갖자는 것이다. 덩그러니 놓인 책가방 때문에 기억 없는 메모기(?)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약간의 배려가 받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고마움이 된다. 생긋한 메모 한 장이 심심한 입을 달랠지도 모른다. 실컷 어려운 메모기(?)라면 온방골의 장미 빛 로맨스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일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중보(인문대 학문4)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누리의 어둠을 밝히시니, 형상강 너머 온방골이 피안인듯 아름답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촬영=송광수 동문

**모니터링**

제 1294호 동대신문을 읽고

### 비현실적 사업선정, 때 이른 제도평가 자제해야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 필요... 발로 뛰는 언론의 초석이 되길

지난 호 동대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기에, 독자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신문을 읽게 되었다. 기사의 대부분이 동대신문 창간 50주년을 기념하는 기사였고, 창간기념 특집면과 문화면은 그 의도와 내용, 편집면에서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편집을 시도하는 동대신문의 노력에도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사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

첫째, 1면의 '창간 50주년 기념사업' 내용 중 '방북취재 사업 추진'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동대신문에서 '통일운동'을 발인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것이다.

둘째, 3면 창간기념 특집의 '인터넷 사용증가, 정보화 추세 반영하는 결과'는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8면 주제기획에 "인터넷 통해 학생들과 호흡한다"라는 머리말을 단 기사가 있는데 이를 함께 기재하거나, 현재 교내에서도 개인이나 단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소개나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8, 9면의 주제기획에서 다른 '학부제'에 대한 기사는 이제 겨우 두 달 여간 지난 이 시기에 다들만한 주제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기사는 객관성을 잃고 학부제의 단점만을 보도했다. ('선배없어 우왕좌왕', '전공선택 후 선배와의 관계난감' 등의 학부제 단점만 지적한 기사만 실려있다) 대학이라는 곳이 무엇인가? 중·고등학교 때처럼 짜여진 틀에 맞춰 사는 곳인가? 대학에서의 선배배격이나 전공선택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학부제는 보다 넓은 인간관계를, 보다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독자의 생각으로는 학년별쯤, 어느 정도 학부제의 장단점에 대해 전 동대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에 동대인의 의식조사와 함께 학부제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일줄 알고 발로 뛰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박은경(인문과학대 국문학부2)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병희야 출산준비 잘해라. 미진야 결혼 축하해  
-97 영문(아) 지연

△회계97 김경호! 생일축하해 ~! 어린이 날 태어나서 좋겠다---.  
△주혁수 생일축하&만수무강해 ~  
-coolfox

△Youth-Hostel 20주년을 축하합니다.  
-M.S.

△AJOU YOUTH-HOSTEL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꺼먼! 생일축하.(5.5)  
-탈

**수고하세요**

△미화야 고고학 공부하느라 수고 많

왔어!

-뽕영이가  
△불패! 야츨 능활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그리고...**

△"혜영 컴백" 이제 학복위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엔플핀

△"Y. S. H. 딸이 깨졌다! 女子가 필요하다 고."  
-19기 이종일

△명철야 저녁 잘 먹었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며...  
-관악

△11일은 지혜랑 알게 된지 300일 되는 날. 우리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꾸나  
-K.Y.오빠

△남소현 너는 세상 하나뿐인 내 전부야.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도, 세상 어떤 것보다 널 바랄 순 없단다. 사랑해.  
-논산 혼련소에서 사회학과 98학번 박형민

온방길

축하합니다

△가정교육과 97학번 설희경의 스물세번째 생일을 정말 정말 축하해.  
△Newsweek 신입생들 데뷔를 축하한다. 승훈, 동욱, 민아, 동진, 또 은연, 봉석이형. 열심히 잘했다. 마시자. -from박 고문

△5월 8일 RY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용~  
△Metal Age 1기 강제주 선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쁜 AGER들이

△휴가나온 성수, 부회장님, 감사 선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호우인 일동

△불교학과 학회장 주일렬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5월 11일 친구가

△매드민턴 동아리 신입부원인 희성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5월 15일은 여경이가 성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용 ~ 멋진 걸즈

수고하세요

△5월 3일 부처님 오신날 점등식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불교도연합회 집부 및 단체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98학번이

△DELL 오빠들~! 동국기한다고 수고하십니다.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DELL Fighting!  
-DELL 9th 일동

**열심히 하시다**

△법정대 체육대회에 행정학과가 우승할 수 있도록 모두 열심히 하시다. -학회장

△5월입니다. 두달이 흘렀군요. 언제나 파이팅! 5월에는 축제도 있다! 신난다.

**그리고...**

△축제때 신해철 불러줘.  
△5월 8일 어버이날. 96신민철! 박대규! 공부 좀 허려~ 부모님 얼굴 보기 안부 궁금해요? 으잉? 잘했어잉.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쇠고기무국(1300) 김치볶음밥(1600)
화	김치콩나물국(1300) 제육두부찌개(1300) 돈가스(1500) 낙지볶음밥(1800)
수	팽이버섯계란국(1300) 된장찌개(1300) 쇠고기덮밥(1700) 전주비빔밥(1800)
목	무채어묵국(1300)
금	쇠고기볶음밥(1700) 풀면(1300)
토	얼갈이국(1300) 순두부찌개(1300) 생선가스(1800) 카레라이스(1500)
일	콩나물국(1300) 햄볶음밥(1600)
만두국(1300) 돈육덮밥(1600)	

(단위: 원)